

三國 ~ 統一新羅期 鬱陵島 橫口式石室墳 研究

김 하나*

〈목 차〉

- I. 머리말
- II. 古墳의 分布 및 現況
- III. 橫口式石室墳의 分類와 時期區分
- IV. 鬱陵島 橫口式石室墳의 流入過程
- V. 맺음말

국문요약

울릉도는 512년 하슬라주(何瑟羅州)의 군주인 이사부(異斯夫)에 의해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이 존재했던 곳으로 상당수의 신라계 황구식석실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글에서는 울릉도에 분포하는 신라묘제인 황구식석실분이 언제, 어느 지역의 영향으로 유입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울릉도에서 조사된 황구식석실분의 분포와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조사된 고분의 형식 분류를 통해 단계를 설정한 후 출토유물을 통한 편년을 시도하였다. 또한 형식 분류를 통한 고분변천 과정을 기준으로 울릉도와 인근한 경북 북부의 안동, 의성 지역과 영동의 삼척, 동해 지역의 고분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울릉도 고분의 유입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울릉도 황구식석실분은 건물의 기단과 같은 축대부에 석실을 축조하고 돌을 이용해 봉분을 쌓은 형태로 세장방형의 석실부는 무단식에서 점차 유단식 황구부 구조로 변화하고, 양장벽은 수직형에서 내경하는 제형(梯形)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황구식석실분은 6세기 중반경에 경북 북부지역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기 시작하고, 점차 재지적 요소와 접목한 울릉도식 고분으로

* 韓國文物研究院

정착하여 10세기 경까지 축조되었다. 또한 신라가 주변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수장들에게 위세품을 분여하고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간접지배의 상징인 동관편 및 청동방울, 금동과관 등의 위세품의 매납과 신라계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유물의 양상을 통해 신라의 입장에서 울릉도가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울릉도 황구식석실분, 우산국, 경북 북부 지역, 신라계 황구식석실분, 신라토기, 축대부, 봉석부

I. 머리말

최근 들어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독도의 母島로 인식되는 울릉도¹⁾의 역사에 대한 정리가 요구되는 바 『三國史記』²⁾, 『三國遺事』³⁾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울릉도와 독도 즉 于山國의 실체를 조명하기 위해 고고학적 연구 자료 조사를 통한 고대 울릉도의 역사복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의 경우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고고학적 조사 및 연구 성과는 타 지역 고분연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울릉도에 처음 고고학적인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 日人 학자들에 의한 것으로 이 시기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연구⁴⁾를 제외하곤 연구 대다수는 결과보고가 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자료가 아닌 관계로 연구 자료로서의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해방 후 1957년·196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박물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된 울릉도의 첫 고고학적 조사와 이에 대한 보고⁵⁾가 있었으며 이후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地表調査와 試掘調査⁶⁾ 등 간단한 조사만 이루어 졌을 뿐 본격적인 學術發掘調査나 고고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부터 동해상의 해상세력으로 활약

1) 울릉도는 동해안에 위치하는 유일한 有人島로 북위 37°29', 동경 130°54',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남해안 일대의 다른 도서와 달리 육지로부터 130km 이상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島嶼의 성격이 매우 강한 곳으로, 섬의 총 면적은 72.99km², 동서직경 10km, 남북직경 9.5km로 죽도, 관음도, 독도 등의 부속섬을 거느리고 있다. 서울大學校 博物館, 1998, 『鬱陵島 - 考古學的 調査研究』

2) 『三國史記』 卷44 列傳4 異斯夫傳 異斯夫(或云苔宗) 姓金氏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海官 襲居道權讓 以馬戲讓加耶(或云加羅)國取之 至十三年 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讓并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孟獸 踏殺之 其人恐懼則降.

3) 『三國遺事』 卷 1 紀異 智哲老王條 “又阿瑟羅州(今溟州)東海中 便風二日程 有亏陵島(今作狝陵) 周迴二萬六千七百三十步 島夷恃其水深 橋檝不臣 王命伊漁朴伊宗 將兵討之 宗作木偶師子 載於大艦之上 威之云 不降則放此獸 島夷畏而降 賞伊宗爲州伯.”

4) 鳥居龍藏, 1924, 『人種考古學上より觀たる鬱陵島』, 『日本周圍民族の原始宗・神話・宗の人種學的研究』東京: 岡書院, pp.161-192.

5) 國立博物館, 1963,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 4冊.

6) 서울大學校 博物館, 1997, 『鬱陵島 地表調査 報告書- 鬱陵島 - 考古學的 調査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8, 『鬱陵島・獨島의 綜合的 研究』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文化遺蹟分布地圖 - 鬱陵郡-』, 學術調查報告 第23冊.

했을 고대 우산국인들의 고분문화 일부를 울릉도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횡구식석실분은 울릉도에서 발굴 조사된 유일한 고고유적으로, 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통해 당시의 문화·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집적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묘제 속성 분류를 통한 아래 같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의 분포와 현황을 통해 유적의 입지상태, 각 고분군의 특수성 및 연관성을 살펴보고 지역별 분포에 따른 고분의 석실 구조 및 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형식 분류를 실시한 후 공반된 출토유물을 통해 축조시기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의 고분 변천과정과 속성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해안의 경북 북부·영동지역의 고분 자료의 비교를 통해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의 유입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정식 발굴 조사된 자료와 지표조사 및 본 연구자의 지표조사를 통해 집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울릉도 고분의 횡구부의 형태, 석실의 축조양상, 봉석부, 축대부 및 유물의 출토양상의 속성을 분류하여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의 특징 및 육지에서의 유입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부터 울릉도에 거주했을 고대 우산국인들의 모습을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古墳의 分布 및 現況

1. 分布

울릉도는 섬 중앙에 위치한 성인봉(984m)과 이와 연결된 알봉(611.0m)·나리봉(813.2m)·미륵봉(900.8m)·대등(566.1m)·태화령(462.0m)·관모봉(686.0m)·삼각산(561.7m) 등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울릉읍, 서면, 북면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진다.

고분군은 주로 성인봉과 연결되어 바다로 이어지는 산지의 경사면 및 바다와 접한 환경사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현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자연지리적인 경계에 따라 고분군의 분포권 또한 3개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⁷⁾

⁷⁾1963년 국립박물관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섬 내의 고분군은 북면, 서면, 남면 일대의 7개소 80여기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군의 수는 26개소 80여기 정도로 이 중 발굴 조사된 고분군은 현포·천부·죽암·남서·남양 고분군 등으로 20여기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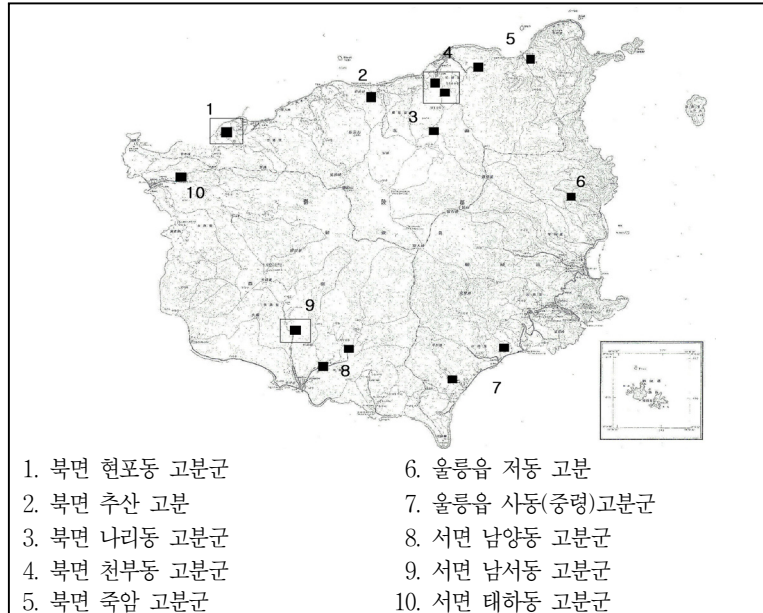


그림 1. 울릉도 고분군 분포도

1) 북면지역

울릉도의 북편에 해당하는 북면에는 송곳산(錐山)을 경계로 북안 서편은 현포동 고분군, 동편은 천부동 고분군과 죽암 고분군, 내륙으로 들어가 위치하고 있는 나리분지 안의 나리동 고분군 등 크게 4개의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다.

1963년 국립박물관 보고서에 의하면 현포동 고분군 38기, 천부동 고분군 3기, 죽암 고분 4기 등이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당시 조사되었던 고분 다수가 훼손 멸실된 상태이며 이외에 추가로 나리동 고분군과 추산 고분군 등이 확인되었다.

(1) 현포동 고분군⁸⁾

현포동 고분군은 본도의 북안 서측에 위치하며, 동쪽의 추산을 지나 천부동과 인접해 있다. 비교적 넓은 완경사 평지를 이루고 있어 경작지 및 주거지로 이용이 가능하며 오래 전부터 많은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했던 곳으로 고분군 주변에 통일신라시대 유적인 현포동 유적⁹⁾이 위치하고 있다.

⁸⁾ 光緒 8年(1882) 高宗 19年 李圭遠 鬱陵島 檢察 啓本草 의 내용에는 ① 初二日 遂登山 踰嶺至大黃土邱尾路傍 多以廣石爲蓋撐以小石卽 古人石葬 云也.....② 初三一 祭山神堂 踰嶺穿林到墨斫支 種種有古 人石葬.....라 하여 태하토구미(태하)와 목작지(현포)에 고분이 간간히 확인되었던 사실을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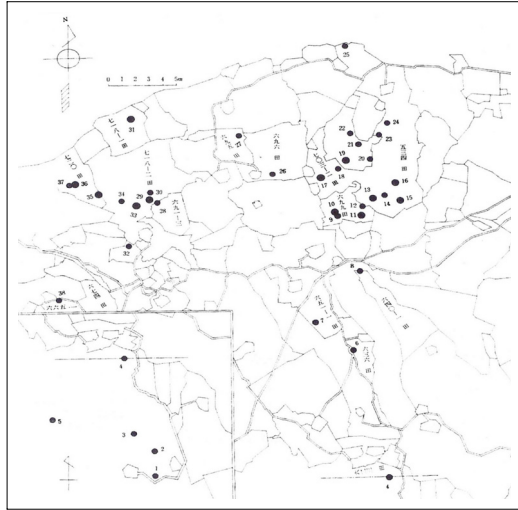


그림 2. 울릉도 현포동 고분군 분포도(1957년)

국립박물관 보고서¹⁰⁾에는 38기 정도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이 중 5기의 고분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나, 조사된 5기는 이미 파괴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는 10기만 경상북도 기념물¹¹⁾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다수 고분은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흔적만 잔존한다.

1957년 조사된 현포동 고분군에서는 특이할 만한 유

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고분군 주변에서 수집된 것으로 전해지는 인화문 장경병이 울릉군 향토사료관에 소장되어 있고, 서울 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주구병과 인화문 토기편 등 다수의 유물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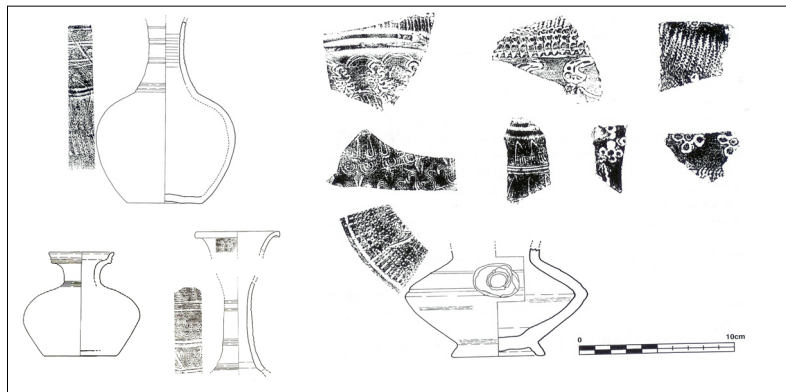


그림 3. 울릉도 현포동 고분군 출토 토기 및 채집유물

9)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현포동 유적에서는 의례나 제의를 위한 시설물로 추정되는 석주열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유적으로 추정된다.

10) 註 5) 참고.

11) 본고에서 각 고분군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1963년도 국립박물관 조사시 보고되었던 고분의 다수가 유실되어 번호부여에 혼란이 야기되는 관계로 편의상 국립박물관 조사 대상 고분번호는 (國)○호로 표기하고, 현재 울릉군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 각고분에 새롭게 부여된 번호는 ○호로 표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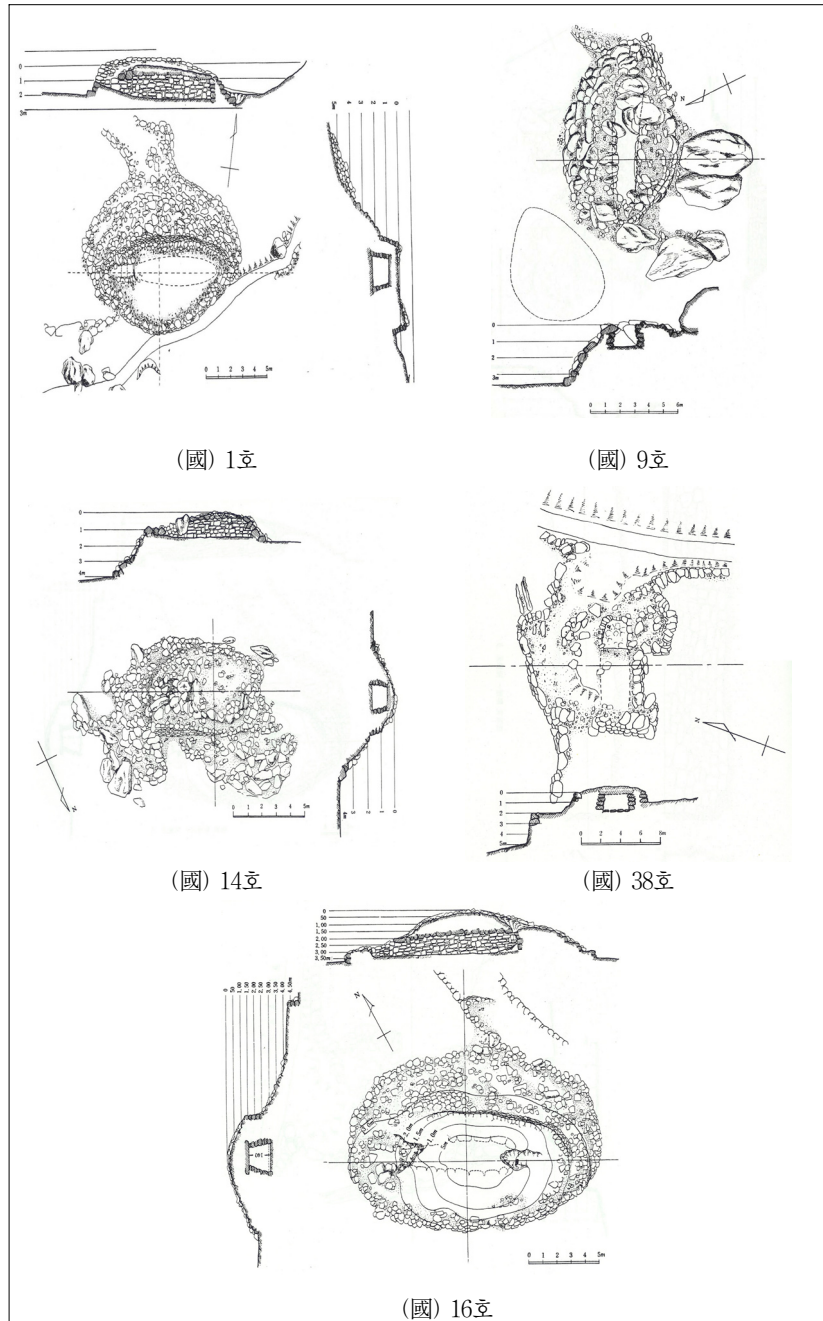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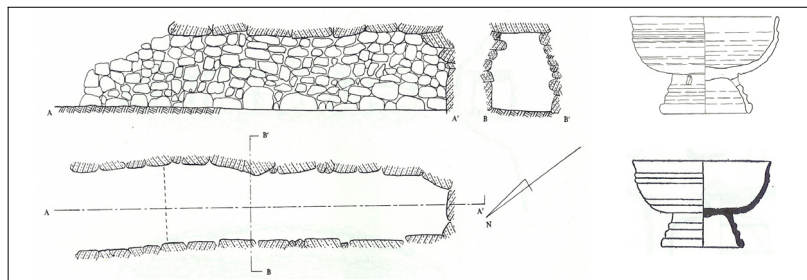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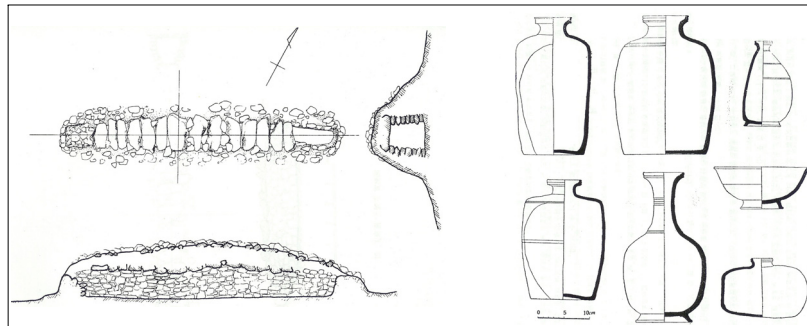
그림 4. 울릉도 현포동 고분군 실측도

(2) 천부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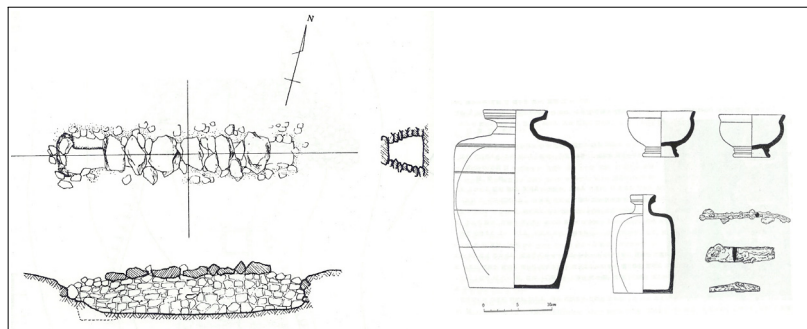
천부동 고분군은 울릉도 북변 동단의 해안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천부마을과 내륙의 나리분지 사이에 위치한 本天府 마을에 위치한다. 국립 박물관에서 천부동 일대를 조사할 당시 이 지역의 서쪽 구릉에서 2~3기, 남쪽 산의 정상부근에서 2기, 서남쪽 구릉에서 3기를 발견하여 그중 천부 1·2·3·4호를 발굴 조사하였으나, 현재는 경작지 개간으로 인해 고분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國) 1호



(國) 2호



(國) 3호

그림 5. 울릉도 천부동 고분군 실측도 및 출토유물

(3) 죽암 고분군

행정구역상 천부동에 속하는 죽암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에 위치한 죽암 고분군은 (國1)호와 (國2)호가 낮은 언덕위의 능선에 불과 5.6m를 사이에 두고 동남-서북 선상에 각각 동일한 장축으로 축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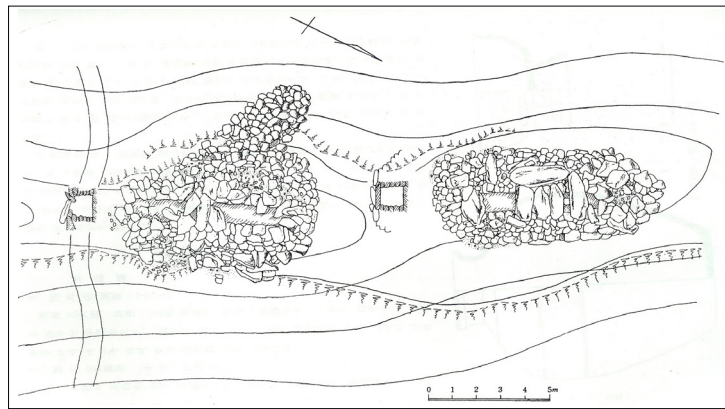


그림 6. 울릉도 죽암 고분군 실측도

(4) 나리동 고분군

나리동 고분군은 나리분지 내 나지막한 구릉 완사면에 위치하는 고분으로 죽암고분과 같이 몇 기의 고분만이 지표조사 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봉석은 대부분 유실되어 원형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 중 1기를 살펴보면 북동향 장축의 고분은 봉석부와 3~5단 가량 잔존하는 동벽의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현존 길이는 550cm, 폭은 380cm, 높이는 150cm가량으로 주변에 140×60cm, 110×40cm 크기의 개석 2개가 봉석부 주변에 비스듬히 얹혀져 있다.

(5) 추산 고분

천부에서 현포로 가는 길가에 위치한 송곳산(錐山) 동편 아랫마을에 위치하는 추산 고분은 해안을 바라보는 완만한 구릉상에 자리잡고 있다. 석실은 북동향 장축으로 북쪽 해안을 향해 입구를 두고 있으며, 크기는 길이 550cm 폭 500cm, 높이 120cm 정도로 장벽을 4단 정도 내경하여 쌓고 6매의 개석을 덮었다. 봉석부는 대부분 유실되었다.

2) 서면지역

울릉군의 최고봉인 성인봉을 기준으로 남서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의 서

쪽에 태하동 고분군, 남쪽에 남서동·남양동 고분군 등 3개소의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다. 보고서¹²⁾에 의하면 남서동 고분군 37기, 남양동 고분군 2기, 태하동 고분군 2기 등이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당시 조사되었던 고분 다수가 훼손 멸실된 상태이다.

(1) 남서동 고분군

남서동은 본도의 서사면 성인봉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양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락으로 마을 중앙엔 남서천이 흐르고 주변에 곡간 평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남서동 고분군은 남서천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면 위치하고 있는 해발 150~225m에 이르는 고지대의 가파른 산사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1957년 국립박물관 조사당시 37기의 고분이 조사¹³⁾되었으나 현재는 15기만이 도기정 기념물¹⁴⁾로 지정·보호받고 있을 뿐 일대 고분은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흔적만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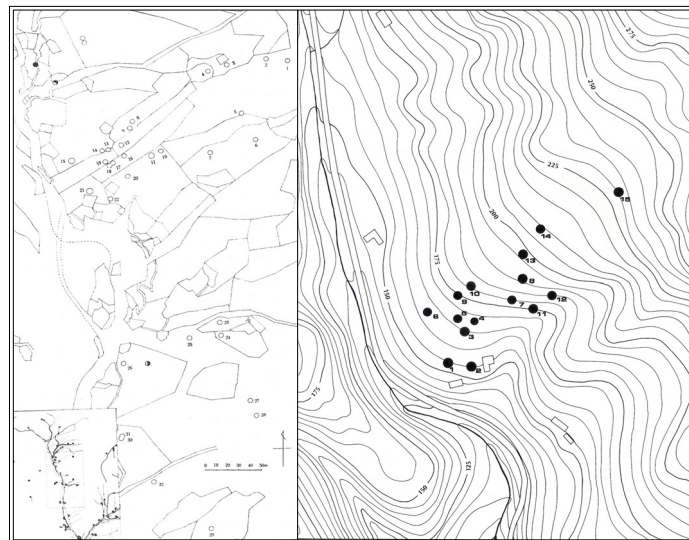


그림 7. 울릉도 남서동 고분군 분포도 (左:1957년, 右:현재)

12) 註 5) 참고.

13) 1957년 국립박물관의 조사는 주 계곡 상부에서부터 각 고분에 번호를 매기고 그 중 비교적 원형이 남아 있는 것들을 골라 실측한 것이다.

14) 1986년 경상북도 기념물 72호로 지정된 남서동고분군(15기)은 1957년 국립박물관 조사시 부여된 고분의 번호와는 별개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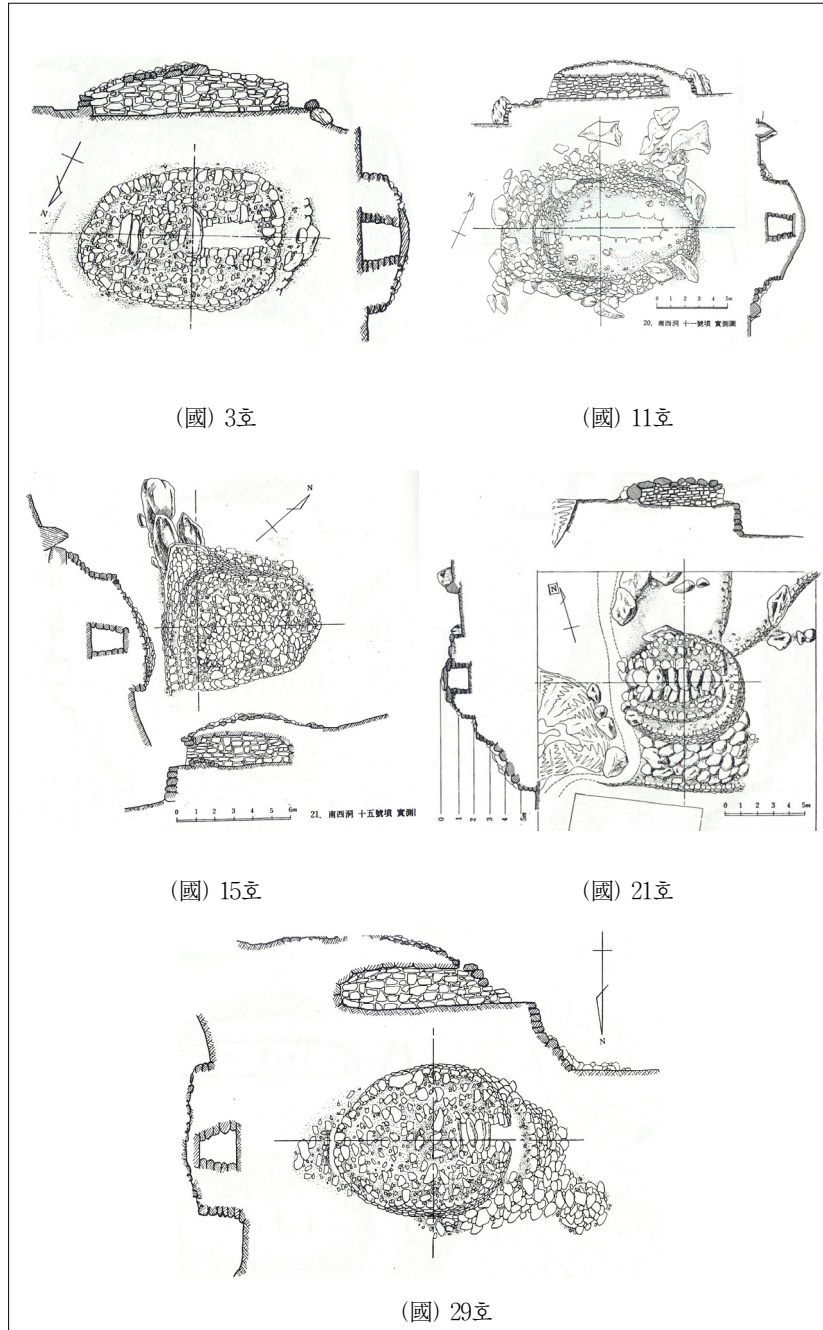


그림 8. 울릉도 남서동 고분군 실측도

발굴 조사된 남서동 고분군에서는 특이할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울대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부장경호의 동체 일부와 대각부등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2) 남양동 고분군

남서동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해변가에 남양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국립박물관 보고에는 6기의 고분 중 2기만이 기록되어 전해지지만 실제 남양동 일대에는 이외의 많은 고분이 산재하고 있었음을 1917년 조선총독부의囑託을 받고 울릉도에 고적조사차 들어온 도리이 류조에 의해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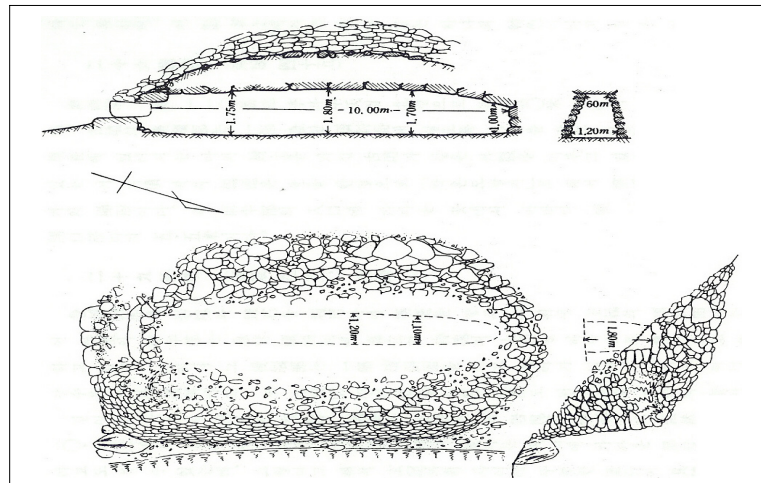


그림 9. 울릉도 남양동 1호분 실측도



사진 1. 울릉도 남양동 고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3) 석문동 고분군

행정구역상 남양리에 속하는 석문동은 조사·보고된바 없으나 1917년 유리원판 사진상에 촬영된 자료를 통해 상당수의 고분이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 울릉도 석문동 고분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4) 태하동 고분군¹⁵⁾

태하동은 서면의 북단, 울릉도의 서북쪽 오른편 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면과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섬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나 고분은 의외로 적고 그나마 남아있는 고분도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잔해에 불과하다.



사진 3. 울릉도 태하동 고분 전경 및 출토유물

¹⁵⁾ 註 8) 참고.

그나마 잔존하는 고분은 붕괴된 폐고분으로 태하 초등학교 부근 山麓에 위치하며, 부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부근에는 원래 5-6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유물은 단경호 1점이 수습되었으며, 태하일대의 건물 공사시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울릉군 향토사료관에 보관중이다.

3) 울릉읍

울릉도의 동남편에서 남쪽일대 위치하는 저동과 사동지역은 현포동이나 남서동 고분군과 같이 군집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개개 고분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울릉군의 중심지역으로 일찍부터 개발로 인해 고분 상당수가 파괴된 것으로 추측된다. 박물관 조사당시 저동과 사동 일대에서는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와는 달리 원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분들 일부와 파괴로 인해 흔적만 남은 고분들이 일부 확인된다.

(1) 저동고분군

저동고분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경사지에 1m 이상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활석을 이용하여 동서향의 장축의 석실을 축조하였다. 석실은 함몰되어 정확한 구조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상부 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주위에서 발견되고 있다.

(2) 사동고분군

섬의 남편에 위치하면서 서면의 경계에 닿아있는 지역으로 사동 3리의 중령고분과 사동고분이 확인된다.

가. 사동고분

사동 고분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완만한 구릉상에 축조되었다. 주변의 레저시설이 들어서면서 사동일대의 고분군은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현재 대아리조



사진 4. 울릉도 사동 고분 석실내부 및 개석 노출전경

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 일대에서는 파괴된 유구로부터 나온듯한 토기편 및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나. 중령고분군

사동 3리에 위치하는 중령고분군은 사동과 신리를 지나 위치하고 있는 중령마을의 북동쪽 구릉에 위치하며,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약간의 경사진 구릉에는 2기의 고분과 토기편들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 5. 울릉도 중령고분 1호 전경

Ⅲ. 鬱陵島 橫口式石室墳의 分類와 時期區分

본 장에서는 현재 잔존하거나 과거 발굴조사에 의해 기록이 남아있는 고분군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이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석실분 분석에 용이한 속성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 橫口式石室墳의 分類

일반적으로 횡구식석실분의 매장주체부는 구조상으로 묘도를 포함한 횡구부 전면(부), 횡구부, 석실의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이런 구조형식의 분류에 있어서 모든 선학들이 기본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부분은 석실로 들어가

¹⁶⁾ 朴廣春, 2006,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65p. 횡구식석실묘 부분 명칭도 참조.

는 입구인 횡구부이다.¹⁷⁾

이는 기본적으로 석실을 구축함에 있어 장:폭비에 따라 입구의 구조와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피장자를 석실로 안치하는 행위와 관련해 한 단벽을 이용하는 횡구식 묘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으로 석실분의 형식분류에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¹⁸⁾



사진 6. 울릉도 남서동 고분 횡구부 전면

횡구부 구조의 변화양상은 석실의 축조방법, 규모·평면형태, 시상대의 형태 등 석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시기차이를 반영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에 대한 속성 분석에서 가장 먼저 기준을 삼는 것은 횡구부이며, 선학들의 구조형식 분류를 참고하여 울릉도 고분에서 확인되는 횡구부 구조를 중심으로 무단식(A유형)과 유단식(B유형)으로 구분¹⁹⁾하고 이에 세부적인 특징을 나누고자 한다.

무단식은 입구부로 사용된 단벽이 다른 세벽과 별개로 축조 되어 석실의 기단부와 연결되지 않고 석실 내부로 들어가는 바닥면이 편평한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유단식은 입구로 사용된 단벽과 다른 세벽의 기단부 일부가 함께 축조된 것으로 석실 안에 들어서기 전 단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단식 중에서도 기초 하단부를 제외한 나머지 단벽의 전체를 횡구부로 사용한 경우는 1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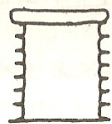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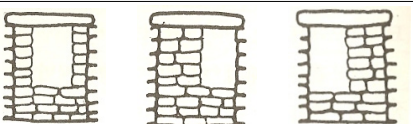
17) 龜田修一(1981)의 경우 墓室築造材料, 壁體의 內傾與否, 入口形態, 屍床面을 통해 I ~ IV 형식을 분류하였고, 朴廣春(1988)은 入口部 段의 有無, 入口形態를 기준으로 하여 A류와 B류로 분류하였으며, 洪濬植은 (1989,1993) 棺臺의 高低, 壁體傾斜度, 入口形態, 追加葬頻度를 통해 I 유형~ III유형을, 조영현은 계보와 평면형태, 천정부 형태를 통하여 I ~ III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18) 洪濬植, 1992, 『嶺南地域의 橫口式·橫穴式石室墓의 研究』, 釜山大學校碩士學位請求論文.

19) 朴廣春, 1988, 『韓·日 豎穴系橫口式石室에 대한研究』, 『考古歷史學誌』4, 東亞大學校博物館.

형, 기초 하단부와 장벽의 일부분 혹은 양장벽을 함께 축조하고 나머지 공간을 횡구부로 사용한 경우를 2유형으로 분류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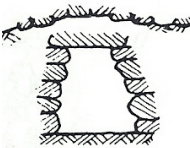
표 1. 횡구식석실분 횡구부 구조

무단식	A	단벽 전체를 횡구부로 사용	
	유단식	1 유형	단벽 중 상부 전체를 횡구부로 사용
2 유형		단벽 중 상부 중앙·일부를 횡구부로 사용	

(洪潛植,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研究』 引用)

다음은 석실의 평면 형태와 벽면 내경 구조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장:폭비에 따라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평면 형태를 시기차이가 반영된 요소로 생각하는 견해²¹⁾와 계통의 차이²²⁾로 보는 견해 중 부장 공간의 평면이 가지는 시간적 요소에 의견을 같이 하여 폭/장의 평면비가 1/3 이상은 세장방형(I), 1/3 이하는 장방형(II), 1/1은 방형(III)으로 나누었

표 2. 횡구식석실분 속성 분류 기준.

평면형태 ²³⁾	벽면내경도	
I 유형 - 세장방형 (폭/장-1/3이상)	수직형(a)	
II 유형 - 장방형 (폭/장-1/3이하)	제 형(b)	
III 유형 - 방형 (폭/장-1/1)		

20) 金錫煥, 2005, 『昌寧地域 橫口式石室墓 研究』, 東義大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1) 洪潛植, 2003, 『新羅後期 古墳文化 研究』, 春秋閣.

22) 文銀順, 1994, 『嶺南地域 橫口式石室墳의 構造와 系統』,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請求論文.

다. 또한 석실의 양벽 축조방법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벽면 내경도는 울릉도 고분에서 확인되는 두가지 유형인 수직형(a), 제형(b)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상기와 같은 속성 이외에도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석실 외부에 덮고 있는 봉석부와 축대부이다.

봉석부는 울릉도에 분포하는 고분군 전체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대부분 유실되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지만, 석실 외저부에 1~3단 가랑 면을 맞추어 축조하고 그 이상부터 석실 상부까지 다양한 규격의 잡석을 쌓아 올려 석실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축대부는 건물의 기반부와 같이 석실 하부에 1m~5m 내외의 높이로 2~6단 가랑 쌓아 올려 축조하였으며, 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으로 일부 고분군에선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하여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횡구식석실분을 속성별²⁴⁾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울릉도 횡구식석실분 속성분류표

유적명	고분 번호	석실규모(m)				횡구부 형태	석실 평면 형태	벽면 내경도	장축 방향 (입구)	봉 석 부	축대
		장	폭	고	천정폭						
현포	(國)1호	6.5	2.0	1.2	1.4	B1	I	b	동-(서)	○	○
	(國)9호	7.0	1.5	1.2	1.3	A	I	a	동-(서)	○	○
	(國)14호	5.0	1.5	1.2	1.2	B1	I	b	서북-(동남)	○	○
	(國)16호	9.0	2.1	1.4	1.5	B1	I	b	동-(서)	○	○
	(國)38호	9.0	2.5	1.5	2.4	A	I	a	(서남)-동북	○	○
천부	10-1호	9.1	1.8	-	-	A	I	b	(남)-북	○	
	(國)1호	6.0	1.3	1.4	1.0	-	I	b	(동북)-서남	○	
	(國)2호	9.85	1.4	1.6	1.1	B1	I	b	(동북)-서남	○	
	(國)3호	6.0	1.2	1.4	0.6	B1	I	b	(동)-서	○	
	(國)4호	5.6	1.4	0.9	1.1	-	I	b	동-(서)	○	
죽암	(國)1호	5.5	1.0	1.0	1.0	-	I	a	동남-서북	○	
	(國)2호	5.5	1.0	1.0	1.0	-	I	a	동남-서북	○	

23) 울릉도의 횡구식석실분은 엄밀히 말하면 유선형의 석실 평면형태를 하고 있다. 석실 입구와 끝부분은 낮게 쌓고 석실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쌓았으며, 양 장벽도 입구에서부터 직선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弧狀을 이루면서 단벽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 석실분과의 비교를 위한 기준통일을 위하여 큰 범주에서 세장방형·장방형 평면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4) 【표 3】은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들 중 국립박물관에 의해 보고된 유구와 현재 남아있는 유구 중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측정한 수치로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답사를 통해 계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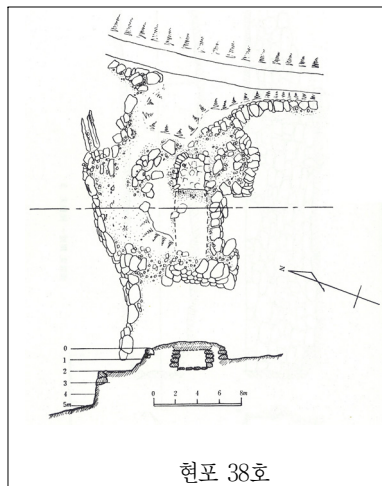
유적명	고분 번호	석실규모(m)				횡구부 형태	석실 평면 형태	벽면 내경도	장축 방향 (입구)	봉 석 부	축대
		장	폭	고	천정폭						
남서	(國)2호	5.7	1.15	1.15	0.6	A	I	b	동북-(서남)	○	
	(國)3호	6.0	1.4	1.5	1.0	B1	I	b	동북-(서남)	○	
	15-3호 (國)18	6.6	1.4	1.55	1.1	B1	I	b	(남)-북	○	
	15-4호 (國)17	6.9	1.1	1.4	0.8	B1	I	b	(남)-북	○	○
	15-5호 (國)19	4.7	1.4	1.2	1.1	B1	I	b	북서-(남동)	○	○
	15-6호 (國)15	5.5	1.3	1.6	0.8	B1	I	b	동북-(서남)	○	
	15-8호	6.1	1.4	1.5	1.0	B1	I	b	(남)-북	○	○
	15-9호	5.4	1.5	1.6	1.1	B1	I	b	(남동)-북서	○	○
	15-10호	4.8	1.0	1.5	0.7	-	I	b	동-(서)	○	○
	15-11호 (國)11	9.0	1.6	1.5	1.0	A	I	b	동북-(서남)	○	○
	15-12호	5.1	1.0	1.4	-	B1	I	b	북동-(남서)	○	
	15-14호	3.1	0.9	1.0	-	B1	I	b	북동-(남서)	○	
	(國)21호	5.7	1.3	1.2	1.0	A	I	b	(동)-서	○	
	(國)26호	5.5	1.15	1.05	0.5	A	I	b	(남)-북	○	
(國)29호	6.0	1.2	1.7	0.7	A	I	b	동-(서)	○		
남양	(國)1호	10.0	1.2	1.8	0.6	B1	I	b	(동남)-서북	○	
	(國)2호	5.0	1.2	1.0	0.8	A	I	b	(동남)-서북	○	

유구의 속성분석을 통해 울릉도에 분포하는 횡구식석실에 대한 횡구부 구조, 석실의 형태, 벽면 내경도 등을 살펴본 결과 울릉도 고분은 크게 3형식으로 분류된다.

먼저 I형식(A I a)은 무단식 횡구부 구조를 가진 세장방향 평면의 석실로 양 장벽이 수직으로 축조되어 천정부까지 이어진다. II형식(A I b)은 무단식 횡구부 구조를 가진 세장방향 평면의 석실로 양장벽이 내경하여 천정부에 닿고 이로 인해 석실의 단면형태가 梯形을 띤다. III형식(B I b)은 횡구부의 단상부 중앙을 사용하는 유단식 구조를 가진 세장방향 평면의 석실로 양장벽이 내경하여 II형식과 동일한 제형의 석실단면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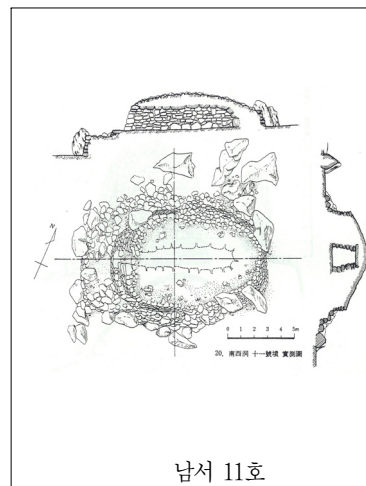
표 4. 울릉도 횡구식석실분 형식 분류

횡구부	평면	벽면 내경도	유 구
A	I	a	현포(國)38호, 남서(國)2호
		b	현포10-1호, 남서15-11(國)11호, 남서(國)21호, 남서(國)26호, 남양2호
B1	I	b	현포(國)1호, 현포(國)14호, 현포(國)16호, 천부(國)2호, 천부 (國)3호, 남서15-3(國)18호, 남서15-4(國)17호, 남서15-5 (國)19호, 남서15-6호, 남서15-8호, 남서15-9호, 남서15-12호, 남서15-14호, 남양(國)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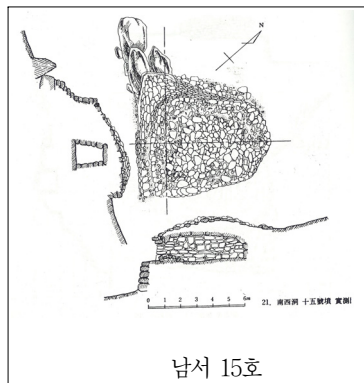
현포 38호

I 형식 (A I a)



남서 11호

II 형식 (A I b)



남서 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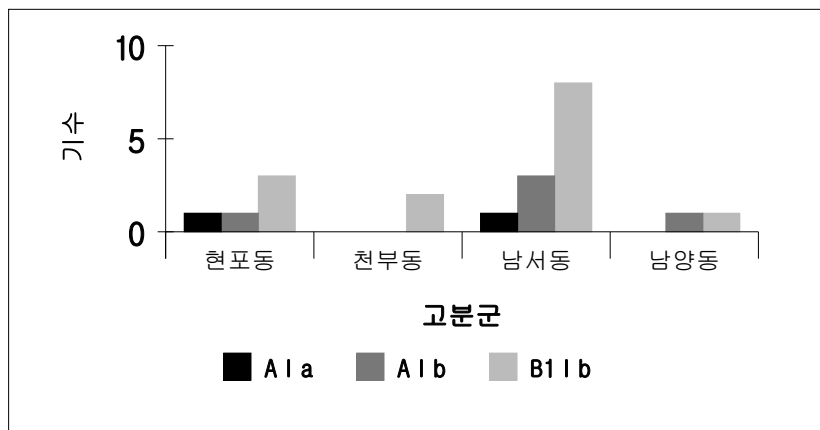
III 형식 (B I b)

그림 10. 울릉도 횡구식석실분 형식 분류 (I ~ III 형식)

정리해 보면,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은 무단식(A)과 상부 전체를 사용하는 유단식(B1) 횡구부 구조의 세장방향 석실로 양장벽의 내경도에 따라 수직형과 제형으로 나뉘어진다.

현포·남서 고분군과 같이 5기 이상이 밀집된 중단위 고분군들에선 1~3단 가량의 축대의 사용이 대체적이지만 1기~3기 가량의 고분이 인접해 조성된 소단위 고분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봉석부는 울릉도 고분군 전체에서 확인된다. 장축방향은 대부분 동서향으로 바다가 보이는 쪽에 횡구부를 두고 있다.

표 5. 울릉도 횡구식석실분 형식별 분포도



2. 出土 遺物에 의한 時期區分

울릉도 고분군은 도굴과 교란으로 인해 출토 유물수가 극히 적고 출토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여서 고분군이 조성된 시기를 추정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 서술할 출토유물을 통한 시기구분은 울릉도 전체의 석실분 축조시기와 육지와의 제관계를 살피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고자 한다.

울릉도 지역에서 확인된 토기는 크게 소성 정도에 따라 적갈색, 회백색, 회청색 토기로 나누어진다. 이 중 적갈색·회백색 토기는 대부분 편들만 확인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며, 회청색 토기는 인화문이 시문된 호, 병, 개, 대부완, 및 사각병, 편병, 주름무늬 병 등 다양한 기형이 확인되었다.

국립박물관과 서울대 박물관 보고자들은 공통적으로 적갈색 토기는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적·지리적인 특색상 정선도가 낮은 점토를 사용하여 노출가마

에서 구운 재지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²⁵⁾에서는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과학적 분석만으로 선불리 산지 추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수 없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적갈색 토기는 차후 많은 자료가 보충이 된 후 논하고자 하며, 황구식석실분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회청색 경질토기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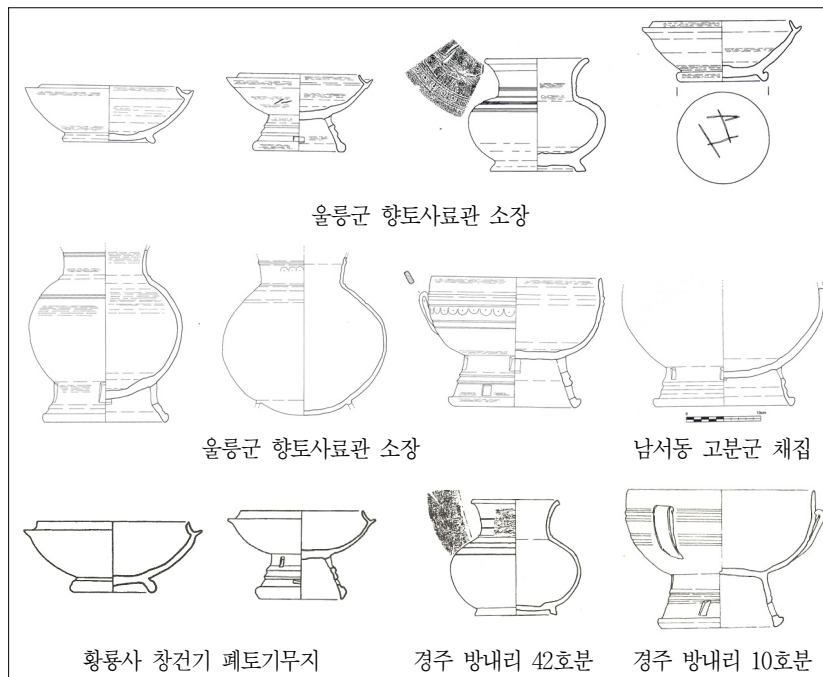


그림 11. 울릉도 제 1기 토기

울릉도 토기는 크게 3기로 분류된다. 먼저 1기에 속하는 토기류는 삼이(三耳)대부완과 대부장경호, 단각고배 등으로 황룡사지의 1차 가람 기초, 늪 매립지, 폐토기 무지 등에서 출토된 창건기 토기들과 유사한 형식²⁶⁾이며 경주 방내리 고

25) 國立中央博物館, 2008, 『鬱陵島』에서는 울릉도에서 출토된 토기를 대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여, 현미경 관찰, X-선회절 분석, 주 원소 분석, 희토류 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대상 유물로 2005년 성립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된 경주 화곡리 유적의 토기요지 출토 토기들의 분석도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두 지역의 토기에서 화산암이 풍화된 토양으로 제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기 제작에 사용된 태토는 울릉도 및 경주 인근의 포항일대에도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토양으로 분석결과 산지 추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내비쳤다.

분군²⁷⁾에서 이 단계 유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향토사료관 소장의 소형 장경호는 선각으로 된 삼각집선문 + 반원점문과 이중원문이 공존하는 초기형식의 유물로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경에 해당된다.²⁸⁾

1기로 분류된 유물들은 남서동 고분군 일대의 채집유물인 대부장경호 1점을 제외한 모두가 울릉군 향토사료관 소장유물로 출토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물을 통해 울릉도에는 6세기 중엽부터 육지(신라권역)로부터 토기가 유입되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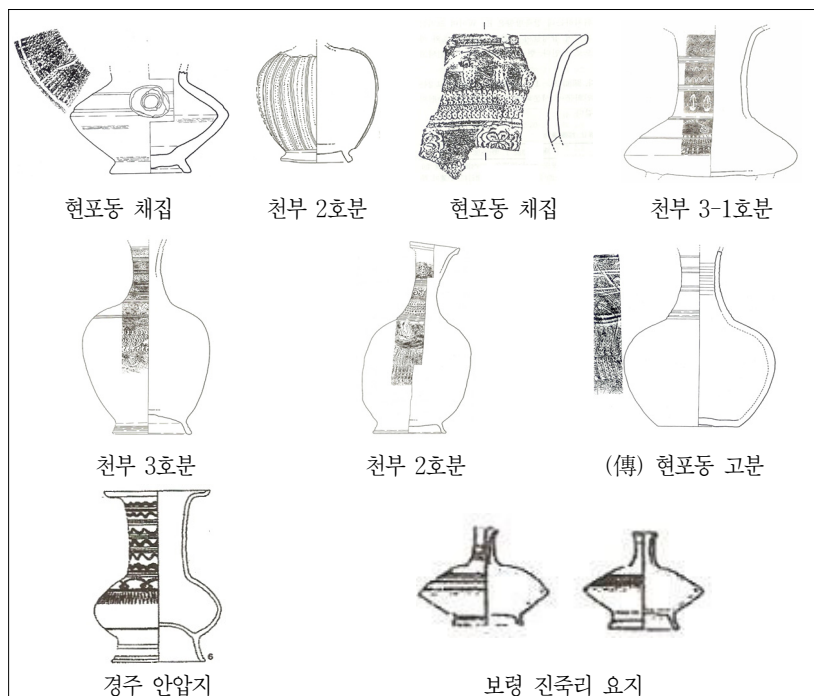


그림 12. 울릉도 제 2기 토기

26) 崔秉鉉, 1984, 『가.土器』『皇龍寺』,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2 『皇龍寺址 出土 創建期土器의 性格』,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2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6, 『慶州芳內里古墳群』

28) 崔秉鉉, 1987,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Ⅰ)』, 考古學編, 一志社.

洪潛植, 2004,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 『嶺南考古學』, 34號

宮川禎一, 1988, 『文樣からみた新羅印花文土器の變遷』,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眞陽社, pp.73-91; 1993, 『新羅印花文陶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 30(中), pp.507- 32

제 2기 토기류는 대부분, 파수부완, 장경병, 병 등의 기종으로 경주 안압지, 경주 손곡동 C-I-2-9호묘 1·2차, 충효동 3·6호, 보령 진죽리 요지 출토 토기들과 유사한 형식이다.

이중 천부동 2호분 출토 주름병과 현포동 출토로만 전해지는 단선화관 국화문 + 이중반원 종장연속문이 시문되어 있는 장경병, 로킹코기법²⁹⁾에 의한 종장연속문 및 다변화문이 복합시문된 천부 2호·3호분의 유물을 통해서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후반까지의 통일양식기 토기가 울릉도 내에 산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³⁰⁾



그림 13. 울릉도 제 3기 토기

울릉도의 제 3기 토기는 대부분 복면 천부동 고분군 출토유물로 출토위치가 명확한 편이며, 울릉도 내의 유물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광구사각병, 편병³¹⁾과 대부분 기종으로 경기도 하남시의 이성산성 출토 토

²⁹⁾ 시문도구를 토기 표면에 눌린 후 윗부분을 그대로 두고 아래 부분을 들어 좌측으로 이동하여 누르는 기법으로, 문양이 八형으로 나타난다.(홍보식, 2003)

³⁰⁾ 崔秉鉉, 1987. 洪漭植, 2003. 宮川禎一, 1948. 앞 논문.

³¹⁾ 8~9세기경 남북국신라에서는 중국 당나라 병의 형태인 광구병(廣口瓶)과 몸체가 4면체인

기병,³²⁾ 용인 언남리 통일신라시대 생활유적³³⁾ 출토 사각병 및 통일신라 말 ~ 고려 초의 도기요지인 영암 구림리 요지³⁴⁾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울릉도 제 3기 토기는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즉 나말여초시기 청자 발생 시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울릉도의 유물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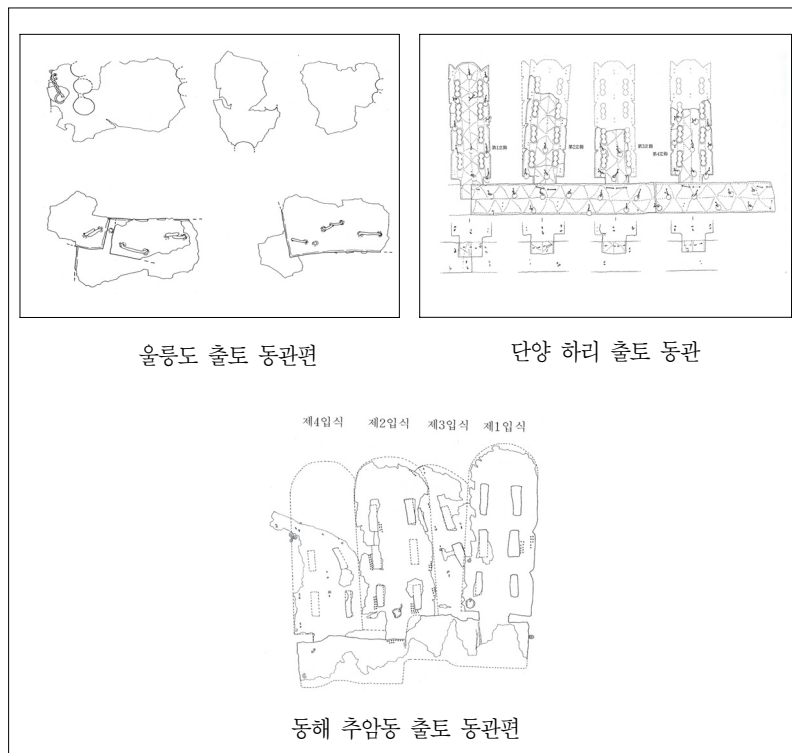


그림 14. 울릉도 및 기타지역 출토 동관

이와 같은 토기유물 외에도 향토사료관 소장 유물과 천부동 고분 1호 출토 유물 중에는 청동방울, 동관편, 동제 이식, 금동제 장식판 등의 금속유물이 확인

4각병이 새롭게 등장하며, 주로 전쟁지역이었던 산성과 경주 안압지,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의 도성유적 및 제주도 등 바닷길의 기항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부장용이 아닌 운반이 편리한 일상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선화, 2005, 『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 재단법인 세계 도자기엑스포.

32)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6, 『漢陽大學校 博物館 收藏 遺物』, pp.129-130.

33)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용인 언남리 통일신라 생활유적』

3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1, 『영암 구림리 도기요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되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명확한 출토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이 다수이다. 이중 동관편은 전체원형을 복원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세움 장식부에 구멍을 뚫은 방식, 구멍을 뚫을 때 생긴 원형의 동관을 銅絲를 꼬아 영락으로 달아놓은 부분 등을 통해 단양 하리에서 출토된 동관³⁵⁾과 동해 추암동고분에서 출토된 동관의 예와 비교해 볼 수 있다.

4~5세기 마립간기에 해당되는 시기부터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6~7세기까지 지방에서 보이는 관류는 신라의 지방통치방식과 관련된 위세품으로 출현 배경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주의 외곽지역에서 확인되는 관은 6세기 이후가 되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6세기 중반 이후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가장 늦은 단계에 편년되고 있는 단양 하리의 동관과의 유사성을 통해, 울릉도에 동관이 유입되게 된 시점을 6세기 중엽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³⁶⁾

IV. 鬱陵島 橫口式石室墳의 流入過程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三國史記』로 지증마립간 13년(512)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에 의해 ‘우산국이 복속이 되어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 내용을 통해 신라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울릉도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우산국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과정 및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측 사서인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沃沮條³⁷⁾의 한 구절을 통해서 동해상의 섬이 울릉도일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우산국 주민의 입도와 관련한 상한연대가 3세기 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가능케 한다.

고려 毅宗 11년(1157년)³⁸⁾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시대 때 우산국에 주현을 설치하여 직접 통치했다는 견해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육지와 먼 거리에 위치한 우산국인들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³⁵⁾ 金弘柱, 1992, 『丹陽下里出土 一括遺物에 대한 考察』 『考古學誌』 제 4집.

³⁶⁾ 國立春川博物館, 2008, 『권력의 상징, 冠』

³⁷⁾ 三國志 魏書 東夷傳 沃沮條

王頊別 遣追討官 盡其東界 問其耆老 海東復有人不 耆老言國人 嘗乘鰐捕魚 遭風見吹 數十日東 得一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基俗常以七月 取童女沈海

³⁸⁾ 『高麗史』 卷18 毅宗世家 2.

『三國史記』³⁹⁾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6세기 초 신라의 정벌 이후에 우산국은 육지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토산물을 바쳐 신라의 영토 일부로 직·간접적인 통치 체제하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반독립적 상태에서 토착세력으로의 독자성은 일부 인정받으며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을 것이다.

신라의 정벌이후 육지로부터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 중 어느 지역에서 묘제와 토기와 같은 물질문화가 전달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 북부·영동지역의 횡구식석실분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嶺南地域 - 慶北 北部

6~7세기의 영남지역의 보편적인 묘제중 하나인 횡구식석실분은 前시기의 수혈식 묘제에 횡혈식 매장법이 접목되어 발생하게 된 묘제이다.

嶺南地域 橫구식석실분은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낙동강 동안의 경우는 수장 층의 묘제로 이용이 되고 신라 외곽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묘제로 수용 되다가 점차 횡혈식석실분이 확대 축조되면서 그 규모와 범위는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라의 대외팽창과 함께 분포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횡구식석실분은 동해안과 인접해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안동 조탑동·지동·수곡동·중가구동 고분, 의성 탐리 고분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내륙으로 들어오면 상주 신흥리 고분, 선산의 낙산동 고분군, 칠곡의 인동고분군, 성주지역의 성산동고분군, 대구의 달서고분군, 경주의 황남동·보문동·동천동 고분 등 신라의 권역에 있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횡구식석실분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영남지역 전체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횡구식석실분 중 울릉도와 가까운 동해안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1) 安東地域

안동은 경상북도의 북부내륙 지역으로 영주시와 영덕군, 의성군, 상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낙동강 본류와 길안천의 합류지점인 임하면, 금소면 일대에 대규모의 고총 고분군(추월산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고, 고분의 규모로 보아 의성

3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13年條

“智證王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 在溟州正東海島 或名 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滄異斯夫 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 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 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 則降”.

탐리 고분군에 대비되는 안동지역의 대표적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안동시의 서쪽에 회곡동 고분군·옥동 고분군, 북쪽에 안막동 고분군·중가구동 고분군·마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동쪽의 임하댐 수몰지구 일대⁴⁰⁾의 수곡동 고분군·지동 고분군 등 다수의 중소규모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다.

(1) 조탑동 고분군⁴¹⁾

행정구역상으로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전 442번지 일대로 서에서 동으로 흘러 의성방향에서 북으로 흐르는 미천에 합류하는 송양천의 북안 산자락 능선에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한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1년 대구고대 박물관, 1992년과 1994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하나의 봉분 안에 두개의 매장시설을 가지는 고분이 다수로 황구식석실과 수혈식석곽이 한 봉토 안에 공존하고 있다.

(2) 평팔동 고분군

평팔동 고분군의 발굴에서는 황구식석실분 1기, 황혈식 석실분1기, 또 황구부가 유실되어 구분이 모호한 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1호 황구식 석실은 표토에서 50cm 이상을 파고 설치된 반지하식으로 창구조의 황구부를 가졌으며 4차례 이상의 추가장이 행해진 황구식석실분이다.

(3) 수곡동 고분군

수곡동 고분의 발굴에서는 총 6기의 분묘가 조사되었으나, 이 중 3호분은 도굴과 경작으로 남쪽 부분이 제거되었고, 또한 동쪽 장벽의 일부는 후대의 민묘에 의해 파괴되었다.

2) 義城地域

신라 인근에 위치한 소국중 하나인 召文國의 영역으로 알려진 의성은 금성면 서편의 금성산 구릉에는 塔里, 大里, 鶴尾里에 걸쳐 고분군들이 분포하고 있다.

(1) 탐리고분군

고분군 중 봉토가 확인되는 고분만도 탐리에서 130여기, 대리에서 36기, 학미리에서 29기 등 엄청난 수의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고분군 가운데 탐리의 서측 제일 정상부에 위치한 가장 큰 봉토분을 가진 고분은 1960년 국립박물관⁴²⁾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봉토는 남북방향의 약간 긴 타원형으로 장축의 저경이 26m, 단축의 저경이 20m, 높이 4.6m 이며 하나의 봉토 안에 5기의 곱이

40) 尹容鎭 外, 1989, 『臨河댐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Ⅱ)』, 慶北大學校博物館.

41) 大邱教育大學博物館, 1992, 『中央高速道路 建設豫定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 1994,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安東 造塔里 古墳群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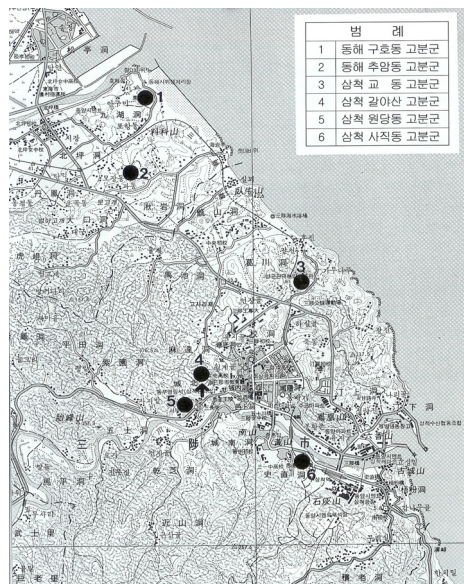
42) 國立博物館, 1962, 『義城塔里古墳』,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三冊.

배치된 다장분이다. 탑리 고분의 묘제는 묘광을 파고 목곽을 설치한 후 뒷 채움을 위해 적석을 한 변형적석목곽묘로 보고하고 있으나⁴³⁾ 5기중 중심 유구인 1호 유구의 실측도면과 당시 조사내용으로 보면 주축방향은 약간 틀은 북동남서향으로 남쪽에 입구를 설치한 횡구식석실분으로 판단된다.

3. 嶺東地域 - 三陟·東海

우리나라 중부 동해안에 위치하는 영동지방은 삼국정립기에 있어 신라와 고구려와의 무력충돌이 빈번했던 곳이다. 삼국형성 이전부터 濊國과 悉直國이라는 각각의 소국들이 형성되어 독자성을 유지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던 후,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신라의 통제권에 들어갔다.

특히 강릉과 삼척·동해지역은 6세기경에 신라에 의해 실직주와 하슬라주



가 설치되어 동해안 북변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강릉과 삼척·동해지역을 포함한 영동지방에는 삼국~통일신라시대에 걸쳐 다양한 형식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영동지방에서의 고분조사는 동해, 삼척지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동해, 삼척지역에서는 추암동·구호동·원당동·사직동·성북동 갈야산·궁촌리유적, 강릉지역에서는 방내리·초당동유적 등 많은 고분유적이 조사되었다.⁴⁴⁾

그림 15. 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분포 (삼척·동해)

1) 三陟地域

(1) 원당동 유적

삼척시 원당동 산 43-2번지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

43) 韓國考古學事典, 下권, 1200p.

44) 關東大學校博物館, 1995,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6, 『東海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이다. 1995년 삼척 사직단지 발굴과정에서 노출된 사직단지 유구 중 제단 남쪽 아래에서 평면 방향에 가까운 황구식석실분 1기가 조사되었다. 원형 호석을 갖추었으며 출토유물로는 토기병 1점, 동제 과대금구 3점, 방추차와 耳飾 1점 및 인골이 출토되었다.

(2) 궁촌리 유적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 80-3번지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으로, 완만한 사면상에 등고선 방향과 일치되게 축조한 3기의 황구식석실분은 입구부가 모두 하천을 바라보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3) 사직동유적

삼척시 사직동 산 43번지 일대로 유적지 정상부에서 뺏어 내린 능선상의 중간부인 해발 25m지점 완만한 평탄지에 3개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2호분은 내부의 토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 하고 3호분은 사직릉이라 불리우며 보존되고 있다.

(4) 성북동 갈야산 유적

삼척시 성북동 산 5-1번지 일대인 갈야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들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정확한 묘제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5~ 6세기에 조성된 황구식무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묘제가 혼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東海地域

(1) 구호동 고분군⁴⁵⁾

구호동 고분군은 1992년도 동해 북평 공단 조성사업지역 내 문화유적 발굴 과정에서 처음으로 角杯와 角杯臺가 공반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던 유적으로 92년에 5기의 고분이 조사되고 99년에 황구식석실분 3기, 석곽묘 3기와 72점의 출토 유물이 조사되었다.

(2) 추암동 고분군⁴⁶⁾

추암동 고분군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일대로 동해시의 남동쪽에 위치하

⁴⁵⁾ 구호동 유적은 1992년과 1999년의 두차례 조사로 11기의 고분이 확인 되었으며 연도별 조사에 따라 유구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유구에 92-○, 99-○의 명칭을 부여. 본고에서도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⁴⁶⁾ 關東大學校博物館, 1990, 『동해북평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1994, 『추암동 B지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동해 북평공단 조성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1994, 『추암동 C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 『동해북평공단 조성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李相米, 1995, 『영동지방 신라고분에 대한 일고찰 - 북평지역 고분군을 중심으로-』, 『정현백 흥기박사화갑기념논총』, 한국상고사학보 제 18호.

고 삼척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체로 5세기 말엽-7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걸쳐 조성된 고분으로 재래의 수혈식 석곽묘를 위시하여 후대의 횡구식, 횡혈식 무덤과 석관계(石棺系) 소형 석곽 등 중소형의 각종 묘제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B지구 21호분에서 출토된 동관은 피장자의 머리에 씌여진 채로 매납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전국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 금동관 등의 유물들의 매납 형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들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신라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양상이 짙으나 구호동 고분군의 유물들과 같이 다소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慶北 北部·嶺東地域 橫口式石室墳의 諸特徵

신라의 대외팽창과 함께 분포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경북 북부 및 영동지역의 횡구식석실분은 대체적으로 산이나 구릉능선의 정상부, 돌단부, 산 사면이나 평지에 주로 분포한다.

묘형은 원형분과 타원형분이 일반적이며 묘형을 결정하는 봉분은 대체적으로 흙과 돌을 섞거나, 흙을 주된 재료로 주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조탑동 고분군의 일부에서는 봉토속에 적석한 고분이 확인되는데 적석은 지붕의 짐석처럼 석실을 덮은 형태로 적석석곽분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과 장방형. 방형으로 중심기에는 주로 장방형석실이 축조되며 이런 평면형태의 변화는 공간 및 시기의 차이를 반영하는 요소로 생각된다⁴⁷⁾. 石材를 이용한 天井은 벽체가 수직형 혹은 내경형(梯形, 弓形)인지의 변화에 따라 그 길이와 고임부분의 구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횡구부 형태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은 세장방형 석실의 경우는 단벽 전체를 입구로 사용하고, 장방형 석실의 경우는 단벽의 윗부분을 또 방형의 경우는 단벽의 일부만 사용을 한다. 영동지역은 유단식의 경우 단벽 상부 전체를 입구로 사용하는 형태, 유단식으로 횡구부의 중앙을 입구로 이용한 형태, 유단식으로 상부 일부를 입구로 사용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바닥시설은 棺臺施設이 없는 것과 棺臺施設이 있는 것으로 나뉘고, 관대시설이 없을 경우 시상바닥의 전면시설을 하거나 바닥의 일부분에 시설을 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횡구식석실분의 축조 시기는 경북 북부지역은 5세기 후반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 지며 6세기 중반대에 들어와서는 횡혈식석실분으로 대체가 되거나 일부 공존하여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동지역의 경우도 5세기

47) 洪濬植, 2003, 『新羅後期 古墳文化 研究』, 春秋閣.

후반 부터 등장하며, 6세기 대에 들어와서는 동해, 삼척지역의 경우 기존의 묘제인 석곽묘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⁸⁾

표 6. 경북 북부 및 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속성표

유적명	고분번호	석실규모(m)				횡구부구조	석실평면형태	벽면내경도	장축방향(입구)
		장	폭	고	천정폭				
안동 조탑동	92'-1호	7.0	1.1	1.6	0.8	A1	I	a	북동-(남서)
	92'-2호	7.0	1.25	1.1	1.1	A1	I	a	북동-(남서)
	92'-5호	4.9	1.35	1.2	1.3	B1	I	a	북동-(남서)
	94'-3호	3.9	2.0	1.9	-	B2	II	b	북서-(남동)
	94'-5호	11.2	1.2	1.8	1.3	B1	I	a	북동-(남서)
	94'-36호	4.0	1.9	1.8	1.1	B1	II	b	남-(북)
	94'-40호	3.2	1.85	천0.5	-	B1	I	a	북동-(남서)
	94'-49호	2.7	1.9	천0.9	-	B2	II	a	북서-(남동)
94'-50호	2.7	2.2	1.2	1.2	B2	II	a	북동-(남서)	
안동 평광동	1호	4.5	2.2	1.7	0.8	B2	II	b	북서-남동
안동 수곡동	1-3호	3.5	2.0	천5.6	-	B1	I	a	북-서
	1-6호	7.4	1.7	천1.2	-	A1	I	b	동-서
의성 탑리	1호	3.5	1.7	1.8	1.6	B1	I	a	(남)-북
삼척 원당동	1호	2.8	2.0	천0.6	2.0	B2	II	a	(남)-북
삼척 궁촌리	1호	3.0	1.5	천1.0	1.4	B1	II	a	(남서)-북동
	2호	2.5	1.6	천1.0	1.6	B1	II	a	(동남)-북서
삼척 사직동	1호	4.6	1.9	1.65	1.1	B1	II	b	동-(서)
삼척 갈야산	5호	3.6	1.1	1.5	-	-	I	b	북서-(남동)
동해 구호동	92-1호	2.8	1.03	0.8	0.8	B1	II	a	동북-(남서)
	99-1호	2.57	0.78	1.0	0.7	B1	I	a	동-(서)
	99-4호	2.97	0.93	1.0		B1	I	a	동-(서)
	99-5호	3.1	1.15	1.2	0.5	B1	II	a	동-(서)
동해 추암동	가 - 1호	2.5	1.6	6.8	1.2	B1	II	b	(남)-(북)
	가 - 7호	3.1	1.1	0.7	1.1	B1	II	a	북서-(남동)
	가 - 10호	2.4	1.4	0.9	1.4	B1	II	a	남-북
	가 - 31호	3.45	1.25	1.35	1.0	B1	II	b	북동-(남서)
	가 - 18호	2.18	1.1	0.75	1.0	B1	II	a	(남)-북
	가 - 34호	2.2	0.95	0.7	0.6	B2	II	b	(남)-북
	가 - 38호	2.0	0.9	0.7	0.5	B2	II	b	북동-(남서)
	가 - 40호	2.35	0.95	0.7	0.6	B1	I	b	북동-(남서)
	나 - 6호	2.9	0.8	천0.9	0.7	B1	I	a	(남)-북

48) 李相洙, 2002. 『嶺東地方 古墳의 分布樣相과 그 性格』 『三國의 接點을 찾아서』, 제28회 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

<표 6>은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 북부, 삼척·동해 일대의 황구식석실분의 속성을 분류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편년을 시도하였으며 묘제 및 속성의 변화만을 통해서 편년설정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공반된 유물의 분석을 통해 이를 참고하였다. 유물을 통한 편년은 토기가 일반적이거나 이들에 대한 상대편년은 학자들마다 대체로 일치하지만 일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표 7. 경북 북부 및 영동지역 황구식석실분 형식분류

I 단계 5세기 중 ~ 후반	A	I a	안동 조탑 92-1·2호			
		I b	안동 수곡 1-6호			
II 단계 5세기 후반 ~ 6세기 초	B1	I a	안동 조탑 94-5호	I b		안동 조탑 94-3호 안동 평팔 1호
			안동 조탑 92-5호 안동 수곡 1-3호 의성 탑리 1호 동해 추암 나 6호			
III 단계 6세기 초 ~ 중반	B1	II a	안동 조탑 94-40호	B2	II b	동해 추암동 34·38호
			동해 구호 99-1호			
			동해 구호 99-4호			
IV 단계	6세기중 ~후반	B2	안동 조탑 94-49·50호			
			II a	삼척 궁촌 1·2호, 동해 구호 92-1·99-5호 동해 추암 1·7·10호,		
7세기		안동 조탑 94-36호 동해 추암 31호, 삼척 사직 1호				

본고에서는 다양한 속성을 통해 분류된 경북 북부, 영동지역의 고분 형식을 I 단계~IV 단계로 설정한 뒤 각 지역의 고분 편년과 비교하여 단계별로 변천하는 과정과 시기를 살펴 보고자한다. 고분 편년은 각 유적의 조사보고자의 견해 및 선학 연구자의 편년관⁴⁹⁾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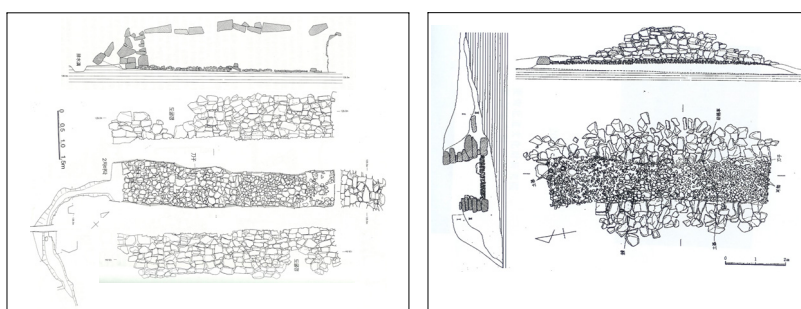
49)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李熙濬, 1997, 「土器에 의한 新羅古墳의 分期와 編年」, 『韓國考古學報』36, 韓國考古學會.

洪潛植, 1998, 「6~7世紀 新羅古墳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 I 단계

I 단계는 무단식 횡구부, 세장방형 평면, 양장벽이 수직 혹은 내경하는 석실인 A I a형식과 A I b형식이 축조된 단계로 경북 북부지역의 안동 조탑동 92-1호·92-2호, 안동 수곡동 1-6호가 해당된다. 고분축조의 절대연대에 대한 자료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주변지역의 토기자료와 비교해 볼 때 I 단계에 해당되는 고분군들은 5세기 중반~후반 경에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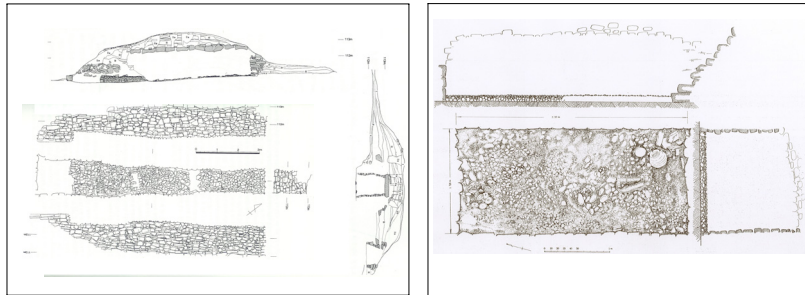
안동 조탑 92-1호 (A I a)

안동 수곡 6호분 (A I b)

그림 16. 경북 북부·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속성분류
(A I a·A I b형식)-I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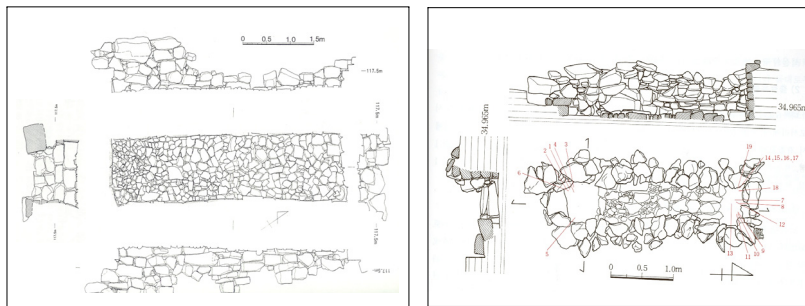
2) II 단계

II 단계는 B1 I a형식과 B2 II b형식이 등장하는 시기로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장방형 평면의 석실 및 횡구부의 단이 형성되며, 횡구부는 단상부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중앙을 사용하는 창구조의 입구 형태가 나타난다. 이 단계의 고분 출토유물에서는 경주계 토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주계 토기를 모방한 재지계 토기가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토기자료를 통해 볼 때 II 단계에 해당하는 횡구식석실분은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 조탑동 92-5호, 94-5호, 안동 수곡동 1-3호, 의성 탑리 1호, 동해 추암동 나 6호(B1 I a), 안동 조탑동 94-3호, 안동 평팔동 1호(B2 II b)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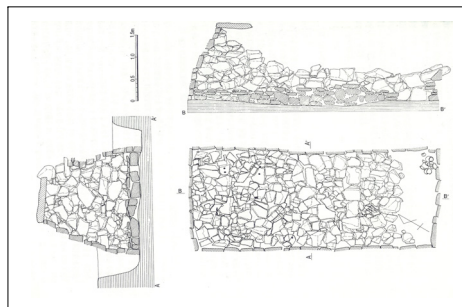
안동 조탑동 94-5호(B1 Ia)

의성 탑리 1호분(B1 Ia)



안동 조탑동 92-5-1호(B1 Ia)

동해 추암동 나 6호분(B1 Ia)



안동 평팔동 고분(B2 IIb)

그림 17. 경북 북부·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속성분류
(B1 Ia· B2 IIb형식)-II 단계

3) III단계

III단계는 II단계의 B1 Ia·B2 IIb형식과 더불어 B1 Ib, B1 IIa, B1 IIb형식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로 횡구부의 구조가 유단식으로 정착되고, 석실의 평면형태도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하면서 양장벽이 내경하여 梯形의 석실 단면형태를 띠는 것이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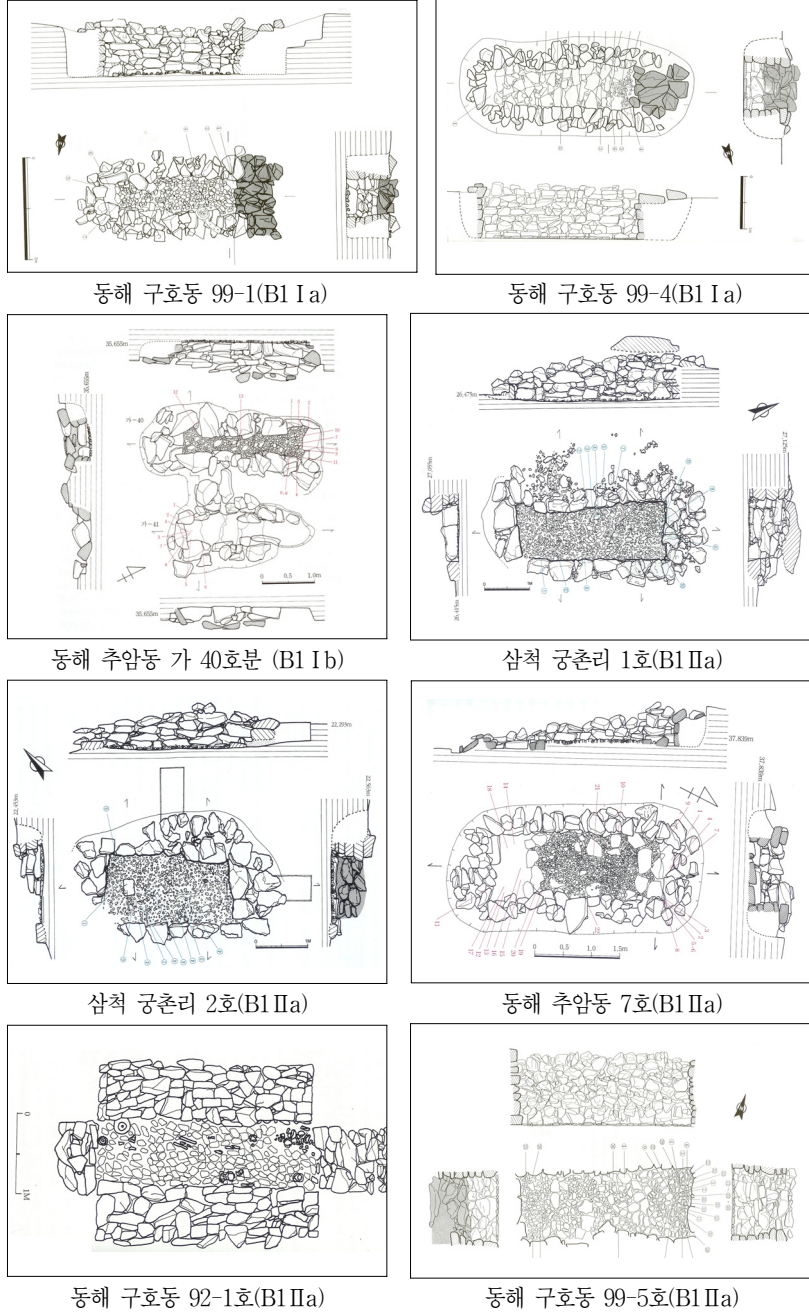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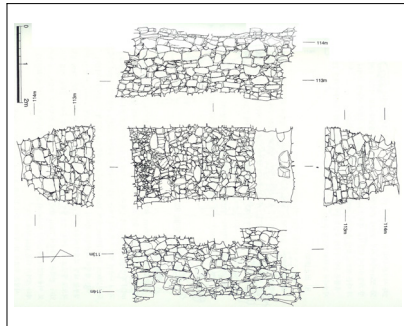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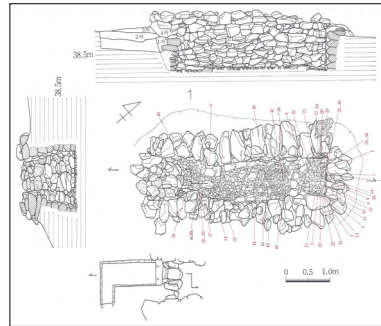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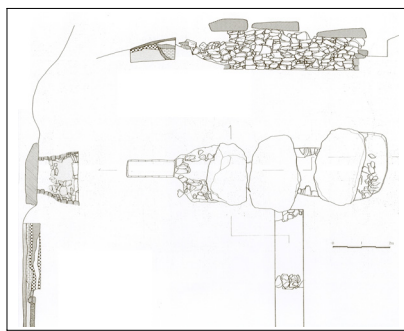
그림 18. 경북 북부·영동지역 횡구석석실분 속성분류
 (B1 Ia·B1 Ib·B1 IIa형식)- III단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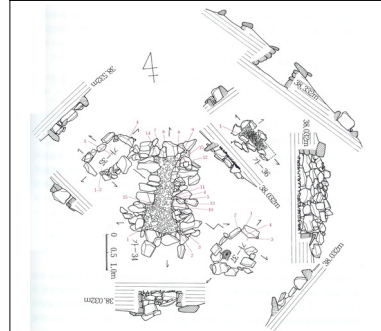
안동 조탑동 94-36호(B1 I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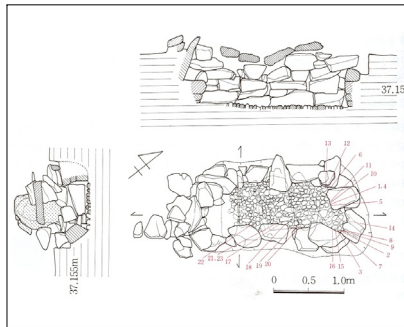
동해 추암동 31호(B1 I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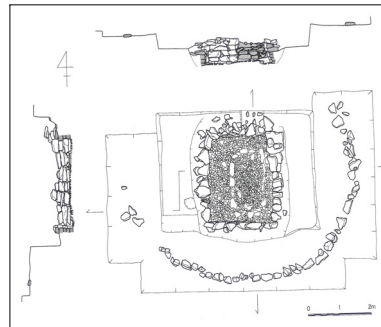
삼척 사직동 고분 1호(B1 IIb)



동해 추암동 34호(B2 IIb)



동해 추암동 38호(B2 IIb)



삼척 원당동유적(B2 I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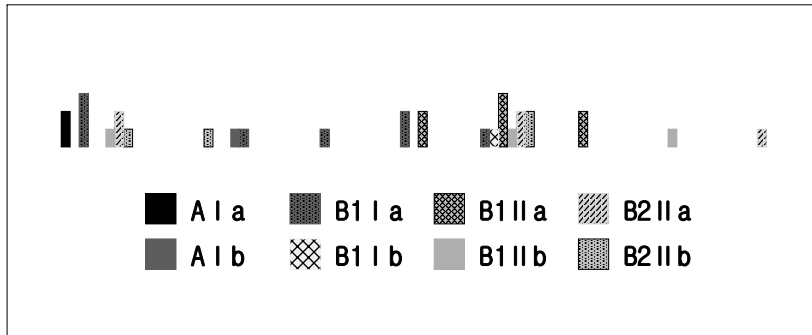
그림 19. 경북 북부·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속성분류
(B1 IIb·B2 IIb·B 2 IIa형식)- III(2)단계·IV단계

4) IV단계

이 단계는 B2 IIa형식으로 단벽 중 상부 중앙 혹은 일부를 횡구부로 사용하고, 장방형 평면형태의 석실에 수직벽을 가진 석실분이 축조되는 단계이다. 장방

형 평면에서 점차 방형 평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석실도 확인이 되며 IV단계에 해당되는 고분에서는 6세기 후반 ~ 7세기 전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표 8. 경북 북부·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형식별 분포도



4. 其他 屬性比較 (封石部를 中心으로)

울릉도에 분포하는 횡구식석실분은 돌을 이용한 봉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섬내에 분포하는 모든 횡구식석실분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반원형, 제형, 장방형, 타원형, 부정형 등 다양한 평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봉석부의 하단은 석실 외벽과 연결해 1~3단 가랑 면석을 사용한 기단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적석하여 석실을 덮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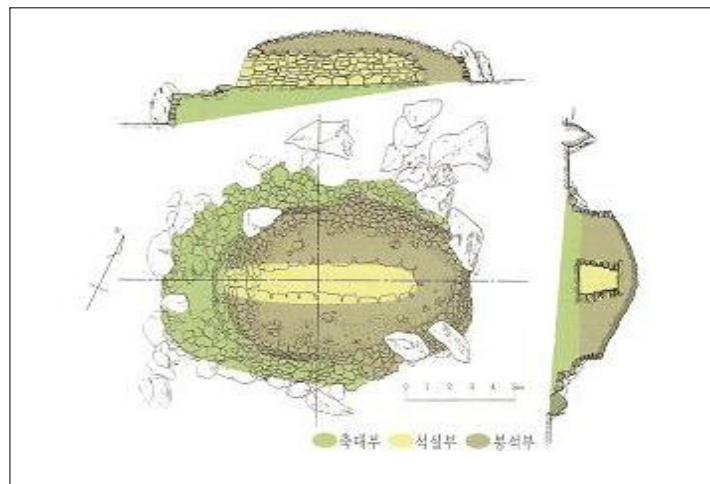


그림 20. 울릉도 남서동 11호분 평단면도 (國立中央博物館, 2008, 鬱陵島 引用)

울릉도의 고분은 묘제분류의 중심이 되는 매장주체부 경우 횡구식 구조의 석실분으로 출토유물의 양상이나 묘제의 전체적인 속성을 통해 신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석실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덮은 봉석부의 형태는 신라권역에 분포하는 고분들에서 쉽게 확인되는 양상이 아니다.

고구려와 초기 백제지역에서는 돌로 봉분을 축조하는 적석총이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고, 신라의 경우도 중심지인 경주지역에서는 돌로 일정한 높이를 쌓고 다시 흙을 덮은 적석목곽묘가 왕묘의 형식으로 유행하였지만, 시공간적인 부분에서 울릉도 고분과의 연계성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1957년 국립박물관 보고와 서울대학교 박물관 보고에서는 울릉도 고분의 봉석은 본토의 묘제와 문화적인 관계성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 아닌 자연여건상 적석봉분이 만들어졌다고 보았으며, 최근 재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보고서에서도 적석형태의 봉석부는 제주나 일본 오키나와 등 본토 주변의 섬 문화에서 보이는 양상과 유사하며, 울릉도만의 자연환경적인 영향과 소수인력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연여건상 적석형태의 봉석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공감하지만, 현재는 유실로 인해 대부분 원형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일제시대 사진자료나 잔존상태가 양호한 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는 양상 중 1~2단정도 정면하여 축을 형성한 후 잡석으로 마감한 형태를 보이는 정형성 있는 봉석부와 축대부가 단순히 자연적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울릉도 고분에 대한 정밀조사나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접근을 통해 봉석부의 형성과정 및 배경등을 일부나마 추측해 보기 위하여 의견상 유사성을 가진 다른 유적들의 예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칠곡 구암동 고분군⁵⁰⁾

경북 칠곡군 칠곡면 구암동 소재의 고분군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칠곡 분지를 관류하여 흐르는 소하천 동편 구릉지대의 정상부와 산록에 형성된 고분군으로 금호강과 합류되는 지점에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다. 1942년 간행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이래 유적의 존재는 알려져 왔지만 도굴 등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어 오다가 1975년도 영남대학교박물관(嶺南大學校博物館)에 의하여 56호분이 발굴되었다. 이 발굴을 통하여 구암동일대의 고분이 적석석곽분(積石石槨墳)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타지역에서 발견되는 적석총이나 적석목곽분과의 관련성이 관심의 대상

50) 嶺南大學校博物館,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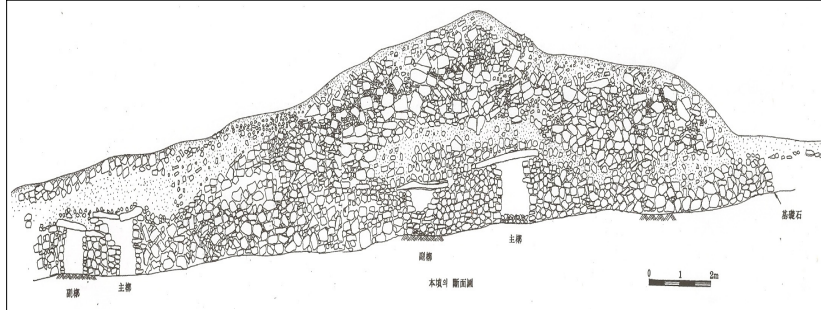


그림 21. 칠곡 구암동 56호분

이 되어 왔다.⁵¹⁾

2) 성주 성산동 고분군⁵²⁾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소재한 성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다. 성주읍의 동남쪽 배경을 이루고 있는 성산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어나간 능선의 정상부와 산록경사면에 대형봉토분들이 밀집되어 성산동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 성산동 고분군의 봉토분들은 1918년에 고분의 번호가 매겨지고 그 중 1·2·6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자체가 전면적인 것이 아니었고 보고문 자체도 소략하여 고분구조나 출토유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다.

1988년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북쪽 경사면에 축조된 38·39·57·58·59호분이 발굴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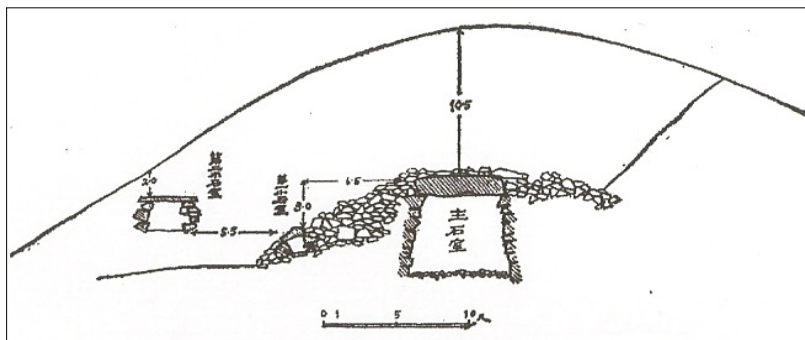


그림 22. 성주 성산동 제 2호분

51)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韓國考古學辭典』

52) 朝鮮總督府, 1922, 『大正八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第2章 星山洞 第2號古墳』 第1冊 pp.14~22 ;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3) 안동 조탑동 고분군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일대에 분포하는 고분군이다.

고분의 입지가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다 보니 외관상으로 볼 때 봉분의 높이가 4~6m 정도가 되어 실제 성토한 봉분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보인다. 조탑동 고분군의 일부에서는 봉토 속에 적석한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적석은 지붕의 층층처럼 석실을 덮은 형태로 적석석곽분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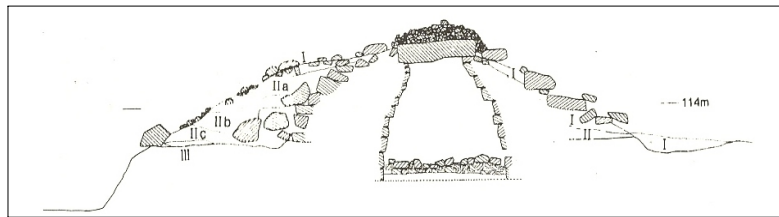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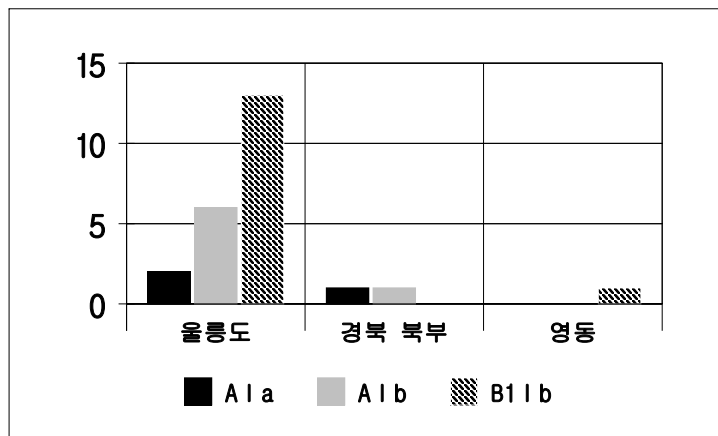
그림 23. 안동 조탑동 94-4호

5. 鬱陵島 墓制의 流入課程

울릉도의 유일한 묘제로 확인 되고 있는 횡구식석실분의 유입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경북 북부 및 영동지역의 횡구식석실분의 횡구부 구조, 석실의 평면형태, 벽면의 내경도 등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형식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경북 북부 및 영동지역 고분군의 여러 형식 중 울릉도에서만 확인되는 A I a (I), A I b(II), B I I b(III) 형식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울릉도 및 경북 북부·영동지역 횡구식석실분 형식비교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북부지역의 제고분군에서는 울릉도 고분의 특징인 무단식 횡구부 구조를 지닌 세장방향 평면형태의 석실과 동일한 속성이 확인되었다.

6-7세기의 영남지역 석실분은 일반적으로 유단식 횡구부구조와 장방향 평면의 속성을 지닌 석실입에 반해 무단식 횡구부, 세장방향의 석실평면을 가진 횡구식석실분은 많지 않다.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조탑동 고분군의 92-1호·2호는 무단식횡구부의 세장방향 석실분으로 울릉도 현포(國)38호, 남서(國)2호와 같은 형식이며, 이를 통해 울릉도 고분 중 A Ia, A Ib 형식이 B1 Ib형식 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짐작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북 북부지역의 고분문화가 울릉도 횡구식 석실분의 생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낙동강 중·상유역 진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신라는 3세기경 甘文國, 召文國, 沙伐國등을 복속하였다. 이 중 소문국은 지금의 의성군으로 동·북부지역은 안동, 청송 등과 접하고 있으며, 안동 조탑동 일대는 의성 인접지역으로 의성 재지 토기의 출토양상을 통해 신라시대에는 동일 세력이 분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문국과 관련된 유적 중에는 금성면 탐리고분과 대리동 고분⁵³⁾, 단촌면 장림동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이중 금성면 일대의 고분은 대체로 4세기말 5세기초의 고분들로 추정되며 이들의 성격은 경주 세력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경주출토 유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지계토기의 출토양상을 보아 5세기 초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문국 복속 이후에는 신라는 안동방면의 진출로를 확보했을 것이며 助賁王 13(242)년 古陀郡(현 안동)에서 『嘉禾』를 진상하였다는⁵⁴⁾ 것을 통해 신라 세력의 영향력이 의성지역과 더불어 안동 일대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북방진출 및 한강유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신라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주요 거점은 6세기 전반 沙伐州(상주), 悉直州(삼척), 何瑟羅州(강릉), 阿尸村小京(의성 안계), 6세기 중반 甘文州(김천 개령), 國原小京(충주), 北漢山州(서울 강북), 比列忽州(안변) 등으로 나타나며⁵⁵⁾ 이들은 각각 경주에서 한강유역과 동해안로의 요충지에 위치하면서 신라 북진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6세기 전반의 의성지역과 삼척·강릉이 동해안으로의 교통로

53) 國立博物館, 1962, 『義城塔里古墳』,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三冊.

김기웅, 1968, 「의성대리고분발굴조사보고」 『史學研究』20.

54) 『三國史記』卷 2 新羅本紀 2 助賁尼師今 13年條.

55)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주요 거점지였음은 울릉도내의 횡구식석실분이 유입되는 루트와 연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라에서 금공품이 출토되는 지역을 교통로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경주-포항-삼척-강릉을 잇는 동해안 루트와 경주-의성-안동-순흥을 잇는 내륙루트로 나눌 수 있다.⁵⁶⁾

이 두 루트는 고구려와 통하는 교통로와 관련된 곳으로 강릉 초당동과 순흥의 읍내리 고분군의 경우는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분묘군이기도 하고 또 동해안일대의 냉수리 고분⁵⁷⁾과 신라 동북의 순흥지역은 신라 북부지역으로 일찍부터 고구려의 영향으로 황혈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왜구의 침입과 해로를 통한 공격으로부터 수도 경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안지대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고 고구려와 인접한 지역인 만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컸을 것이다. 이 지역에선 일찍부터 경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이를 모방한 재지계 토기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연관 지을 때 신라의 입장에서는 동해상의 해상권 및 해상루트와 관련하여 울릉도는 매우 중요한 거점지였을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울릉도에서 확인되는 신라계의 석실과 출토유물인 금공품·토기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의 원류로 판단되는 경북 북부지역에서 나타나는 횡구식석실분의 A Ia, A Ib 형식은 5세기 후반으로 편년이 되고 있으나, 울릉도의 초기 석실분의 축조 시기는 섬 내에서 확인된 유물의 양상을 통해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어 반세기 가량의 시간적 공백이 드러난다.

당시 신라가 복속한 소국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三國史記』에 표현된 대로 군을 설치하여 직접통치를 하는 것이 아닌 토착세력을 이용한 간접통치로 추정되나⁵⁸⁾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새로운 신흥집단에 의해 경주계토기 또한 유입되어 재지계 토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우산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512년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면서 우산국의 토착세력을 이용한 간접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특정한 성격을 지닌 신흥집단을 투입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울릉도에는 횡구식석실분과

56) 이한상, 2003, 『분묘자료로 본 5~6세기대 영주의 위상-읍내리 분묘군의 분석을 중심으로-고구려·신라문화의 접점, 영주』, 동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학술대회 발표 요지문.

57) 냉수리 고분은 석실 구축 후 상부에 적석한 후 봉토를 쌓았으며, 토층사이에 1층의 적석층을 만들었다. 국립경주박물관, 1995 『냉수리 고분』

58) 李種旭, 1979, 『斯盧國의 成長과 辰韓』 『韓國史研究』25, 韓國史研究會, pp.2-5

같은 묘제와 유물들이 유입된 것이다.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전달되는 과정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본토와는 달리 다소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는 영남지역의 고분문화가 전통적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절충된 특징을 나타내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의 묘제에서는 신라의 복속과 함께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앞 시기의 묘제가 그대로 지속되면서 토기의 운송에 의한 유물의 신라화 양상을 보인다. 복속이후 울릉도에 새로운 문화를 유입해온 세력들은 5세기 후반 안동 조탑동 형식의 횡구식묘제를 들여오지만 토기 같은 물질자료처럼 쉽게 변화하지 않는 묘제의 전통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묘제와 물질자료가 획일화 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울릉도 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석부는 칠곡 구암동·다부동, 성주 성산동, 안동 조탑동·수곡동 고분군과 기본적으로 석재를 이용해 축조한 매장주체부의 상부에 돌을 쌓아 마감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외형이나 사용된 돌의 양에서 울릉도 고분의 봉석부와 차이를 보이지만, 칠곡 구암동 고분군과 안동 조탑동 고분군, 수곡동 고분군에 사용된 매장시설의 평면형태가 울릉도 석실분과 동일한 세장방향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상기 유적의 조사보고자들은 유적의 지리적 위치, 입지양상, 매장시설이 세장방향인점을 들어 가야계 묘제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돌을 이용하여 봉분을 만드는 양상은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도 일찍이 확인되었고, 당시 낙동강 유역의 여러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던 것이 석곽묘, 석실분 등 석재를 이용한 매장시설이었던 만큼 모방에 의한 수용과 전통의 고수가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묘제가 등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⁵⁹⁾ 육지와 달리 흙이 충분하지 못한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 주변의 석재를 봉분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일부 제지역에서 개석상부에 흙과 돌을 섞어 엮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묘제의 형식 자체의 특징으로 적석을 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이와 비교를 통해 고분의 형식적인 부분의 연계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분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장주체부 외에도 외형을 둘러싸고 있는 분구 역시 피장자의 신분이나 당시의 매장 습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인 만큼 많은 자료의 보장이 절실하다.⁶⁰⁾ 울릉도 고분의 특이한 봉석부 형태는 경부 북부지역의 묘제가 울릉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합 양상일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하고 차후 자료가 충분히 보장된 후 논하고자 한다.

59) 註) 51 참고.

60) 註) 20 참고.

V. 맺음말

울릉도의 고분은 6세기 중엽 경에서 10세기경에 걸쳐 약 300여년 이상에 걸쳐 축조된 횡구식석실분으로 구조상 석실부, 봉석부, 축대부로 구분된다. 육지로부터 묘제가 유입되었을 초기엔 무단식의 횡구부 구조, 수직벽을 가진 세장방향 석실형태로 축조되다가 점차 횡구부에 단이 설치되고 양장벽이 내경하면서 제형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며, 석실외부를 덮고 있는 봉분이 돌로 이루어진 봉석부 라는 점, 석실 하부에 건물외의 기단부와 같은 축대부가 축조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의 횡구식석실분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동해안 일대의 영남·영동지역의 제고분 속성을 울릉도 횡구식 석실분과 비교해 본 결과 울릉도 고분은 경북 북부 지역의 안동 조탑동 고분군과의 성 탐리 고분의 형식에서 보이는 무단식 횡구부, 세장방향 평면, 수직장벽과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울릉도 고분의 축조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토기는 6세기 중반부터 고려 초인 10세기 이전까지의 자료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들의 출토위치가 명확한 경우가 드물어 각 유구와 유적간의 상세한 편년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울릉도에 고분문화와 더불어 토기 등의 물질문화가 유입된 시기는 6세기 중반이며 10세기까지 신라와의 관계는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의 토기는 대부분 육지에서 생산되어 반입된 것으로, 해당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집단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종 구성과 기형, 문양 등에서 지역성과 전통성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생활해 왔던 생활방식이 육지의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울릉도 출토 동관편을 통해볼 때 영남지역의 금동관 출토지역은 의성 탐리, 경산 임당동, 대구 비산동, 선산 낙산리 등 소문군, 압록국, 다벌국 등 신라에 복속된 소국들로 이 지역 고분들의 구조가 각 지역의 독자성을 강하게 보이는 듯 하나 출토유물에서 경주에 강하게 예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시 우산국도 토착세력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면서 신라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을 것을 가능케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울릉도 횡구식석실분은 경북 북부지역의 묘제가 울릉도에 유입되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울릉도 고유의 특색 있는 묘제로 정착

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황구부의 구조인 무단식에서 유단식으로 변하는 것과는 달리 세장방향의 석실 평면 형태는 계속 지속하면서, 황혈계 묘제의 특징인 추가장을 통해 새로운 고분의 축조 외에도 기존 조성된 매장공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투고일 2009년 12월 26일 | 심사완료일 2010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0일 ■

참고문헌

단행본

- 朴廣春, 2006,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洪潛植, 2003, 『新羅後期 古墳文化 研究』, 春秋閣.

논문

- 朴廣春, 1988, 『韓·日 豎穴系橫口式石室에 대한 연구』 『考古歷史學誌』4, 東亞大學校博物館.
_____, 1990, 『伽倻·九州의 豎穴系橫口式石室의 源流について』 『古代朝鮮と日本』(古代史論集4)
金宰賢, 1994, 『동해시 추암동 B지구고분군의 매장과 부장행위』 『文物研究』제 2호.
金弘柱, 1992, 『丹陽下里出土 一括遺物에 대한 考察』, 『考古學誌』제 4집.
文銀順, 1994, 『嶺南地域 橫口式石室墳의 構造와 系統』, 韓國精神文化研究院碩士學位請求論文.
朴普鉉, 1995,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相洙, 1995, 『嶺東地方 新羅古墳에 대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제 18호, 韓國古代史學會.
_____, 2005, 『嶺東地方 橫穴式石室墓의 樣相과 性格』 『東峰申千湜教授 停年記念史學論叢』
이한상, 1995, 『5-6세기 신라의 주변지배방식- 장신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33, 서울대국사학과.
_____, 1998, 『금공품을 통해 본 5-6세기 신라의 집권화 과정』, 동원학술전국대회 발표요지.
李熙濬, 1997, 『土器에 의한 新羅古墳의 分期와 編年』, 『韓國考古學報』36, 韓國考古學會.

- 오재진, 2001, 『新羅의 湖西地方 進出過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 정영화, 1998, 『울릉도의 고고학적연구』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曹永紘, 1994, 『嶺南地方 橫口式古墳의 研究-類型分流와 展開를 中心으로-』 『伽倻古墳의 編年研究(Ⅱ)-墓制-』, 嶺南考古學會.
- 崔秉鉉, 1987, 『新羅 後期 樣式 土器의 成立試論』 『三佛金元龍教授停年 退任記念論叢』(Ⅰ), 考古學編, 一志社.
- 洪潛植, 1992, 『嶺南地域의 橫口式·橫穴式石室墓의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 _____, 1995, 『고분문화를 통해 본 6·7세기대의 사회변화』, 『韓國古代史論叢』7.
- _____, 1993, 『嶺南地域 橫口式, 橫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嶺南考古學』12,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4,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 『嶺南考古學』34號.
- 金錫煥, 2005, 『昌寧地域 橫口式石室墓 研究』, 東義大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 宮川禎一, 1993, 『新羅印花文陶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30(中).

Abstract

A Study on the Ulleungdo's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 In Three Kingdoms - Unified Silla Period

Kim, Ha-Na

Ulleungdo is the place where Usan existed, which later became subjugated to Silla by Lee Sabu who was the ruler of Haseulraju in 512, despite the numerous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s of Silla existence, the study on the subject is still very insignificant. Th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when and what region's influence the Silla culture was introduced to the island together with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 by examining the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s distributed throughout Ulleungdo region. In Chapter II, will be summarization of distribution and status of the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s found in Ulleungdo up to this date. In Chapter III, there will be attempts to establish classification and stages by the type of tombs and chronically record them through the excavated relics.

In Chapter IV, based on the changing process and property of such tombs, the influx process of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tomb in Ulleungdo region was reviewed by analyzing in comparison with the materials found from the tombs in Samcheok and Donghae regions in the vicinity of the east coast, and Andong and Uiseong regions in northern Gyeongbuk.

As for the results, The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tombs in Ulleungdo region were first built in mid 6th century. Later, Ulleungdo's own tomb style was settled down with a strong characteristic of original settlers and continued to be built until 10th century. The excavation remains from the 6th century middles which are a time where the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tombs flows initially the 10th century respect remains are confirmed

Judging by the remains that mostly consist of Silla earthenwares and buried prestige goods such as a piece of bronze crown, bronze bell and gilt bronze buckle that represent indirect governing behaviors of distributing the prestige goods to the local ruling class and guaranteeing certain positions during the process of Silla unifying the neighboring countri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place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gion and managed accordingl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of lacking sufficient data on Usan nation besides the literature about subjection to Silla in 512, the materials of tombs suggest the ideas on the process of Usan becoming a tributary to Silla.

Key Words : Ulleungdo's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 Usan country, Gyeong buk northern part area, Type of silla's horizontal entrance outer stone coffin tomb, Silla earthenware, Stone embankment, Stone mound.